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사학위논문

제주읍성의 변천에 대한 역사고고학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변 성 훈

2015년 8월

제주읍성의 변천에 대한 역사고고학적 연구

지도교수 김 영 관

변 성 훈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8월

변성훈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 동 전 (印)

위 원 양 정 필 (印)

위 원 김 영 관 (印)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5년 8월

A Historical Archeological Study on the Changes of Jeju Eupseong Fortress

Byeon, Seong-Hun
(Supervised by professor Kim, Young-Kwa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5. 8.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 Historical Archeological Study on the Changes of Jeju Eupseong Fortress

This paper mainly researched the historical records about the changing process and structure of Jeju Eupseong Fortress constructed in downtown Jeju, and reviewed Jeju Eupseong Fortress based on the historical archeological researches on the existing protruding ramparts in east, 'Dongchiseong'. It also review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rst construction of Jeju Eupseong Fortress, which is the most representative defense facility of Jeju, and an ancient castle, 'Mugeunseong' and examined the data including ancient map, photo, the latest archeological research results as well as the literary records including condition of location, archeological environment, extension and reconstruction process and background, scale, construction method and subsidiary facilitie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identified that the condition of location was not bad for Eupseong since Jeju Eupseong Fortress was fortified at the center of Jeju in terms of politics, administration and military and the site of fortress and surrounding areas had various remains from the Prehistoric Age to Historical Age.

Second, though it is difficult to specify the initial construction of Jeju Eupseong Fortress, the literary records showed that the castle had already existed before the Joseon Dynasty. This research identified that Jeju Eupseong Fortress used the existing castles after renovating the facilities. It also proposed the relationship with 'Mugeunseong' with the arguments from many researches.

Third, the background of extension and reconstruction of Jeju Eupseong

Fortress was identified through the historical records, which showed that extension and reconstruction was done for the military purpose as well as to prevent the drinking water issue that was discovered in the existing researches and the damages from flood.

Fourth, it is hard to figure out the exact scale of Jeju Eupseong Fortress, as the ramparts were torn down in construction of Sanji Harbor in the 1920s under the Japanese colonial policy. Therefore, this paper mainly reviewed the land register map in 1914 and the scope of Jeju Eupseong in the historical record. The scale system to measure the scope was converted into several scales in the Joseon Dynasty and the used scale system was cloth measure, which is *Pobaekcheok*. According to the historical records, the circumference of Jeju Eupseong Fortress was mostly marked at 5,489 Cheok. The length of the circumference was converted into 2.56km and the height of 11 Cheok was converted into 5.14m, indicating the scale of Jeju Eupseong Fortress. The height is identified as about 6.07m, which is higher than the record, when including *Yeojang* which are the walls built up above the rampart.

Fifth, the inner and outside walls of the fortress were reinforced by stone walls and the inside of the castle was built by pebbles in the form of *Hyeopchukseong*, which is a castle built with the same height of inner and outer walls. The construction method was stacking up the stones on an irregular line. The stone size was inconsistent since the stone, a material to construct the fortress, was mostly basalt in Jeju area. Therefore, the fortress was constructed by horizontally stacking the stones in inconsistent sizes and different shape. The fortress was constructed by placing footstones at the bottom and putting small stones upwards to stabilize the ramparts.

The stones for construction were easy to obtain, given the basic elements including the easy-to-use size for construction, process and sampling site, except for special cases. The mostly used stones for fortress construction in Jeju were basalts formed by the volcanic activity. This is because it is easy

to collect the basalts across Jeju area.

Last but not least, this paper reviewed the castle gate, round fortress (*ongseong*), fence (*chi*), stone wall (*yeojang*), moat and bulwark of subsidiary facilities of Jeju Eupseong Fortress. The gates of Jeju Eupseong Fortress were three each in the East, West and South, composed of two drainage facilities for castle (*Sugu*) in the South and North and two bulwarks of *Sominmun* and *Junginmun*. Ongseong was installed to effectively attack the enemy in front of the gate and protect the gate by complementing the weak points. The form of Ongseong in Jeju Eupseong Fortress was identified to be installed in the special shape of 'ㄱ'.

Chiseong was identified to be installed as '*Gyeokdae* (fortifications for attack) 27' in the records of 'Tamraji' and 'Dongguk Yeogigi'. Chiseong was built in the same method of fortress construction, in the form of *Hyeopchuk*, which identically stacked the stones in the inner and outer walls and the method of stacking up the stones on an irregular line. The scope and forms of stone walls (*Yeojang*) were identified in the recent archeological research on the upper structure of *Dongchiseong* Fortress as the walls were studied based on the photos and records in the existing researches. In addition, by showing the record in 'Tamraji' on the moat facilities, this paper suggested the specific grounds for existence of moat facilities and reviewed the form and scope of bulwark by posting the photos and pictures of the facility.

Jeju Eupseong Fortress is a fortress of the leadership of Tamra, a country which had protected Jeju since the period of Tamra, a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s. It is believed that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researching Jeju Eupseong Fortress as it has poor research conditions due to the demolished ramparts, and there should be various further archeological researches and studies on Jeju Eupseong Fortress.

Keywords: Jeju Eupseong Fortress, Rampart, Construction of Fortress, Extension and Reconstruction, Dongchiseong

목 차

Abstract

Ⅰ. 서 론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방법 ····· 2

Ⅱ. 제주읍성의 축조와 변천 ····· 5

1. 입지 조건 ····· 5

2. 고고학적 환경 ····· 9

3. 초축과 古城과의 관계 ····· 11

4. 증개축 배경 ····· 18

Ⅲ. 제주읍성의 구조 ····· 24

1. 제주읍성의 규모 ····· 24

2. 축성 방법 및 재료 ····· 32

3. 부대시설 ····· 41

Ⅳ. 결론 ····· 68

참고문헌 ····· 70

표 목차

<표 1> 제주읍성과 연해읍성과의 비교 ····· 16
<표 2> 제주읍성의 증·개축 현황 ····· 23
<표 3> 제주읍성의 규모와 시설현황 ····· 26
<표 4> 조선시대의 여러 척도 ····· 30
<표 5> 조선시대의 여러 척도와 제주읍성의 둘레 환산 수치 ····· 31
<표 6> 제주읍성 잔존구간 하부 대석 크기 ····· 38
<표 7> 잔존 성곽 성돌 분석표 ····· 40

도면 목차

<도 1> 제주읍성 위치도 ····· 8
<도 2> 동치성 성벽 해체 단면도 ····· 33
<도 3> 동치성 기초부 도면 ····· 35
<도 4> 잔존 성곽 입면 현황도 ····· 37
<도 5> 1914년 작성 지적원도 ····· 50
<도 6> 1914년 작성 지적원도 남문 확대 모습 ····· 51
<도 7> 제주읍성 중앙치성 발굴도면 ····· 55
<도 8> 제주읍성 동치성 발굴도면 ····· 55

사진 목차

<사진 1> 제주읍성 남문 인근에서 출토한 기단 석렬 모습 ····· 11
<사진 2> 동치성 성벽 해체 모습 ····· 32
<사진 3> 제주읍성 잔존성곽(일도1동 1094-61번지 인근) ····· 37
<사진 4> 제주읍성 동치성과 남수구 ····· 39
<사진 5> 제주읍성 남문 ····· 45
<사진 6> 제주읍성 동문어귀 ····· 48
<사진 7> 제주읍성 동치성 상부 발굴 완료 모습 ····· 56
<사진 8> 제주읍성의 옛모습 ····· 59
<사진 9> 제주읍성 성문어귀 ····· 60
<사진 10> 발굴된 동치성 동측 여장 ····· 61
<사진 11> 발굴된 동치성 서측 여장 ····· 61
<사진 12> 제주읍성 간성 및 중인문 ····· 66

그림 목차

<그림 1> 탐라순력도「濟州操點」····· 45
<그림 2> 다케노 세이기치가 그린 제주읍 산지천 일대 풍경 ····· 65

Ⅰ. 서론

1. 연구목적

지리적으로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제주는 중국에서 한반도 남쪽을 거쳐 일본 큐슈지역으로 이어지는 해상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 동남아 지역 등을 왕래하던 선박들의 중간 기착지가 되어 옛부터 외지인들의 왕래가 빈번했음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는 제주지역에서 발견되는 외래유물의 흔적과 제주도내 곳곳에서 외국 화폐가 출토되는 것으로도 당시 제주지역을 거점으로 한 교류가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1] 또한 고려시대에 원의 일본정벌을 위한 전초기지가 되었다든지,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왜구의 빈번했던 침입 등을 보면 제주의 지리적 위치가 매우 중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중요성을 조선왕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식하였다. 선조는 "제주읍은 지형상으로 우리나라의 형세뿐만 아니라 실로 천하의 형세에 관계되는 중요한 곳이다. 만에 하나 지키지 못하여 적의 소굴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병력으로는 다시 수복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제주를 방어하지 못하게 될 때는 실로 우리나라가 망하는 때인 것이다. 다른 일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 짐짓 생각 밖에 두고 있으니, 내가 매우 걱정스럽다"하였다.[2] 이는 제주의 지리적 위치와 제주 방어에 대한 중요성을 잘 드러내주는 예이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제주도 방어를 위하여 해안에 진성과 봉수 및 연대 등을 곳곳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행정의 중심지 3개소에도 읍성을 쌓아 외세의

1) 제주도 출토 화폐 유물은 1926~1928년 건입동 산지항 축항공사 당시 절벽 동굴 아래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을 비롯하여 애월읍 금성리 패총, 구좌읍 종달리 유적, 법정사지, 항파두리 토성 등에서 중국의 화폐가 발견되었다.

2) 濟州之爲邑, 非特我國之形勢, 實乃天下之形勢. 萬一失守, 爲賊窟穴, 則以我國之兵力, 恢拓極難. 濟州失禦之日, 實是亡國之秋也, 而不遑他事, 姑置度外, 予甚憂之(『宣祖實錄』 卷 158, 36년 癸卯 1월 14일 辛未).

침입에 대비하였다.

제주읍성은 대부분의 읍성처럼 평시에 행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었지만, 유사시에는 방어시설로서 기능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제주도는 군사적 요충지였다. 제주를 침입하는 외세를 방어하기 위하여 제주의 중심지에는 제주읍성이 축조되었고, 제주에 파견된 수령들은 조선왕조의 건국 이후 끊임없이 성을 증·개축 하였다.

제주읍성은 제주도 방어와 통치의 중심지로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리되고 관리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제주읍성에 대해서는 선학들의 연구가 이미 있어왔다. 그러나 아쉽게도 처음 축성한 시기와 증개축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부족하였고, 증개축에 따른 읍성 규모의 변천과 구조 등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필자는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제주읍성의 규모 및 초·증축 시기와 배경 등을 살펴보고 제주읍성의 구조 및 재료, 축성방법, 부대시설 등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 결과와 최신의 고고학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현재까지 제주읍성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우선 제주도의 방어유적 전체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며 제주읍성의 초·증축 관련 기록 정리 및 규모, 시설현황, 축성 방법에 대하여 개괄적인 연구가 있다.[3]

둘째로, 제주읍성 및 오현단에 대한 복원과 정비계획을 세우면서 제주읍성의 현황에 대해 문헌 기록과 시굴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규모 등에 대해 언급한 연구가 있었다.[4]

---

3) 김명철, 「朝鮮時代 濟州道 關防施設의 硏究」,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제주도, 『濟州의 防禦遺蹟』, 1996.

4) 제주시에서는 도시 확장과 더불어 날로 훼손되어 가는 문화재를 보존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1990년에 제주성지 및 오현단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계획에는 제주읍성의 연혁 및 관련 문헌 조사와 구체적으로 제주읍성 부속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역사적 자료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치성 상부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건물지가 출토하였는데 이 조사결과는 당시 사료

셋째로, 제주읍성의 원형을 구명하기 위하여 신작로 개설 전인 구한말 도로체계를 복원한 후 읍성 안 관아시설과 성곽 내·외부의 도로체계를 통한 제주읍성의 기능과 역할을 분석하여 제주읍성의 공간 구조를 복원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5]

넷째로, 탐라순력도를 통해 18세기 초 제주 3읍성의 건축특성과 읍성의 규모 및 성문 위치와 건물 등 공간구조를 디지털로 복원하고자 한 연구도 있다.[6]

다섯째로, 제주의 방어시설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 및 다른 주제의 연구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제주읍성의 축조 배경 및 규모 등을 문헌 기록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연구한 것들이 있다. 즉 조선시대 읍성 중 특히 도서지역에 위치한 읍성을 연구하면서 제주읍성의 축성규모 및 방법, 성곽의 주요 시설물 등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하거나[7] 濟州啓錄의 修·改築 기록을 중심으로 제주읍성을 포함한 대정·정의현성의 설치 배경과 증축 과정, 그리고 증개축의 원인 등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8]

여섯째로, 제주 주성의 역할을 하는 제주읍성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함께 관광자원화 등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비전과 계획을 제시한 연구[9]와 성곽 복원 공사를 하면서 공사 전 과정을 기록하여 보고서로 남긴 자료[10]도 있다.

마지막으로는 제주읍성이 위치했었던 곳에 각종 개발공사 시행 전 실시한 매장문화재 조사 와 성곽 보수정비 사업을 위한 시·발굴조사 연구도 이루어져 성벽 기초석 및 치성 상부 건물지 등이 확인되어 제주읍성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에 성과를 거두었다.[11]

의 기록에 의존하였던 제주읍성에 대한 연구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조사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둔 연구다. 濟州市,『濟州城址 및 五賢壇 整備計劃(案)』, 1990.

5) 양상호,「舊韓末 濟州邑城의 道路體系에 관한 硏究」,『건축역사연구』 제20권제6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11.

6) 윤일이,「『탐라순력도』를 통해 본 제주 3성의 건축특성」,『대한건축학회지』 제24권제12호, 대한건축학회, 2008.

7) 강두용,「朝鮮時代 島嶼地域 邑城에 대한 硏究」,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8) 오수정,「19세기의 제주읍성」,『19세기 제주사회연구』, 일지사, 1997.

9) 제주역사문화진흥원,『제주성지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제주시, 2013.

10) 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3호 제주성지 정비공사 수리보고서』, 2014.

11) 탐라매장문화재연구원,『제주시 삼도2동 176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내 문화재 시굴조사 간략보고서』, 2008. ; 제주문화유산연구원,『제주지방기상청 청사 신축 부지 내 매장문화재 표본조사(부분완료) 보고서』, 2013. ; 제주고고학연구소,『제주성지 정비 공사 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2013. ; 제주고고학연구소,『제주성지 누각 복원 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2014. ; 제주고

이러한 앞선 연구들은 제주읍성에 대해 많은 사실들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제주읍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실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주읍성에 대한 연구는 더욱 진전되어야만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 성과를 토대로 제주읍성에 대한 문헌기록과 최근까지 이루어진 제주읍성에 대한 현장조사 및 최신의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좀 더 진전된 연구를 시도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입지 조건을 분석하고 문헌기록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읍성의 초·증개축의 시기와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또한 제주읍성이 축성된 위치와 주변에 대한 고고학적 환경을 분석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진 고고학 조사 결과를 검토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비교적 연구가 미진한 제주읍성의 규모, 성곽 구조, 축성 재료, 축성방법, 부대시설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알려진 각종 자료와 고지도 및 사진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자료를 추가해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읍성에 대한 최신의 고고학적 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이다.

고학연구소, 『제주시 삼도2동 853번지외 3필지 문화재 보존조치(입회조사) 결과보고서』, 2013. ; 제주고고학연구소, 『제주성지 누각 복원 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2014.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시(동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설계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010.

Ⅱ. 제주읍성의 축조와 변천

1. 입지 조건

1) 축성 배경

읍성은 조선시대 지방의 府·郡·縣 등의 관아를 중심으로 행정관서가 설치된 고을에 외적을 대비함과 동시에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 마련된 성곽이다. 즉 읍성은 각 고을의 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서 백성들이 평상시에는 마을에 거주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는 읍성에 들어가 항쟁할 수 있는 성곽으로 마련되었다. 이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마련되긴 하였으나, 행정적인 기능을 겸하는 성곽으로 발전되었음을 말해준다.

읍성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은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라 할 수 있는데 고려시대에는 여진족을, 조선시대에는 왜구에 대비하여 집중적으로 축성되었다.[12]

읍성의 축성은 조선 세종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특히 沿海邑城 축성에 중점을 두었다. 『世宗實錄地理志』에 의하면 335개소의 행정구역 중 읍성이 있는 곳이 96개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도별로 살펴보면 충청도 15개소, 경상도 27개소, 전라도 20개소, 황해도 4개소, 강원도 6개소, 평안도 16개소, 함길도 8개소 등이다.[13] 이 중 충청도·경상도·전라도의 下三道에 축조된 읍성은 모두 62개소로 전체 읍성 중 64% 이상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고려 말, 조선 초에 출몰한 왜구의 잦은 침략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위 시설을 확충하고 城內 주민들의 방위 능력 향상을 위한 조치였다.

2) 입지 조건

읍성의 입지 조건에 대해 심정보는 ①넓고 평평한 곳, ②水泉이 풍부한 곳, ③險

12) 손영식, 『한국의 성곽』, 주류성, 2011, 15쪽.
13)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사), 『성곽 조사방법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3, 29쪽.

阻함에 의지하는 곳, ④교통이 편리한 곳, ⑤비옥한 토지가 있고 경작지가 가까운 곳, ⑥내부가 험하고 큰 곳, ⑦주민들이 번성한 곳, ⑧석재가 많아 공력을 덜 수 있는 곳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성내가 넓고 평평하며, 水泉이 풍부한 곳이 성을 쌓을 때 가장 먼저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라고 하였다.[14]

제주에는 제주, 대정, 정의 등 총 3개의 읍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 중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제주읍성은 행정구역상 이도·삼도·일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주의 정치, 행정, 군사적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하던 곳이었다.[15] 제주읍성이 축성된 지역의 입지조건을 심정보의 연구에 의한 입지조건과 비교하여 보면 ①번 조건에 대해서는 제주읍성이 축성된 위치는 산지천과 병문천간에 위치한 저평한 평탄지대에서 동·남문 방향으로 경사를 이루고 있으나, 성 안은 넓고 평평한 곳이 많아 과거 선사시대 이래로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지리적 조건을 갖춘 곳으로 ①번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곳이다.

②번 조건의 水泉이 풍부한 것과 관련해서 보면 제주읍성은 당초 성 안에 물이 없어 식수를 구하기 어려운 불리한 조건이었다. 그렇지만 증축을 통해 성 안에서 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성 동쪽 山地川 바깥으로 성을 쌓아 성 안쪽에 川水가 유입되어 물을 얻기 용이하게 하였다. 그 덕분에 자연히 성 안에 쉽게 물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고 생활에 불편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성 안 사람들이 음용수를 얻기 편리하게 '山底泉'[16] 과 '嘉樂泉'[17]의 두 샘을 확보한 것이다.

③·④·⑥번의 입지조건과 관련해서 보면 우선 제주읍성이 위치한 곳은 해안가 인접한 곳에서 한라산 방면으로 경사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주변에 지형을 유리

14) 심정보, 『한국 읍성의 연구 -충남지방을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1995, 422~423쪽.

15) 고려시대에는 일도와 이도, 삼도 등을 통합하여 大村 또는 大村縣이라 했다. 대촌현이 생겨나는 시기는 충렬왕대 제주 지역의 행정단위 개편시기에 생겨났다는 주장이 있으나 필자는 『太宗實錄』 卷 31, 태종 16년 5월 정유조의 기록을 참고할 때 숙종 10년(1105) 耽羅郡이 설치되는 시기에 생겨난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기록을 검토할 때 자세히 밝히도록 한다.

16) 산짓물. 현재의 제주시 일도1동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서 샘이 용출하는데 여름에도 얼음처럼 차고 맛이 좋아 제주목사는 물론 온 성안 사람들이 길어다 먹었다. 『增補耽羅誌』 泉池條에는 山底泉에 대해 '제주邑 일도리에 在하니 泉味가 深甘하여 邑人의 飮料水가 되다.'라 기록되어 있다.

17) 가락쿳물. 현재의 제주시 이도1동 오현단 북동쪽에 있는 샘물로 가뭄에도 마르지 않았다. 『增補耽羅誌』 泉池條에는 '제주邑 이도리에서 在하니 大石 下에 穴이 有하여 一線泉脈이 湧出하니 深이 一丈余 冬期에는 水量이 小함이 常例나 夏節 雨期에는 漲溢한다.'라 기록되어 있다.

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라산이라는 큰 산을 의지할 수 있다는 유리한 이점이 있었다. 그리고 제주읍성은 제주도와 육지를 잇는 요충지이자 도내 교통의 중심지에 축성되었다.

마지막으로 ⑤·⑦·⑧번의 입지조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제주읍성 지역의 전체 토지 대부분이 경작지로 이용되었으며, 축성된 위치가 대개 해안가의 평탄대지로 농토화되어 경작지로 이용된 곳이 많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제주지역의 특성상 돌을 흔하게 구할 수 있어 축성에 필요한 석재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이었다. 따라서 입지조건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제주읍성의 축성위치는 적합한 곳에 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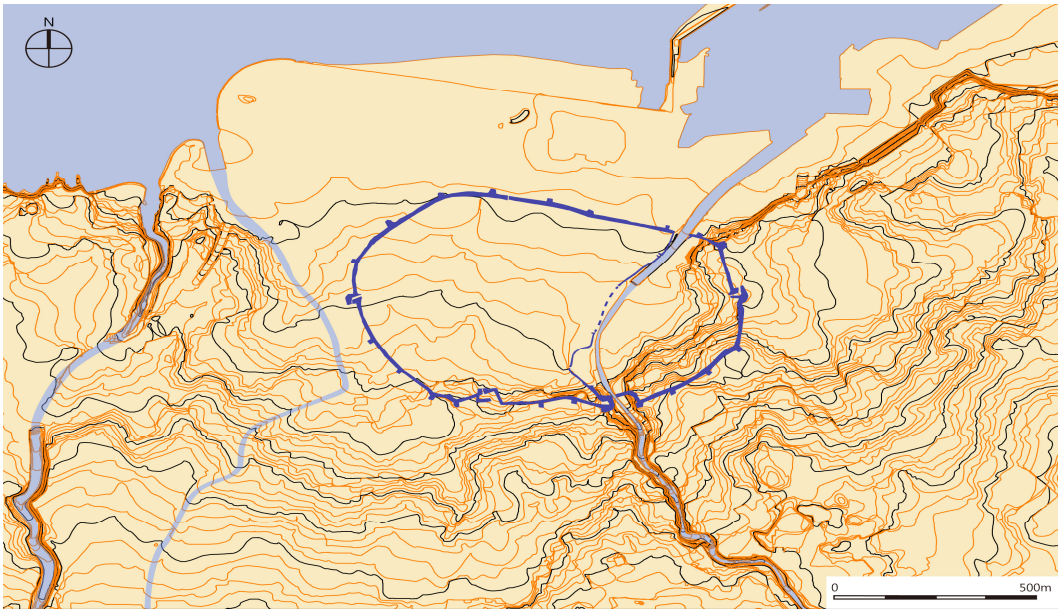
성곽은 축성된 지형에 따라 산성, 평지성, 평산성으로 구분한다. 산성은 말 그대로 산에 축조한 성곽으로 방어력이 뛰어나다. 평지성은 평지에 축조한 성곽이어서 방어력은 우수하다고 할 수 없으나 활용성이 높다. 평산성은 배후에는 산지를 포함하고 전면에는 소하천이 있는 평지에 조성되는 성곽이다. 즉 평탄한 위치에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경사진 형태로 축성된 성곽을 평산성이라 할 수 있다.

제주읍성은 평탄지대에서 경사지가 일부 포함된 지역에 걸쳐 축성되었고 하천을 끼고 있어 평산성[18]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는 제주읍성이 위치한 지역의 등고선도를 참고하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도면 1>은 제주읍성이 축성된 지역의 등고선도로 북쪽 성곽은 해발 5m의 평탄한 지역에 축성되어 일정하게 동서로 축성되었으나 남문이 위치한 남쪽 성곽은 해발15m 이상의 경사진 지역에 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지천을 넘어 동남쪽으로 갈수록 등고선이 조밀하게 표기되어 급경사 위치에 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제주읍성이 축성된 지역의 형세는 동서 방향으로는 일정하게 굴곡 없이 평탄지역에 축성이 되었으나 남북으로는 바다쪽으로 경사가 지고 하천을 감아돌고 동남쪽으로는 급경사지가 있어 완만한 평탄지보다는 경사가 있는 굴곡진 형태로 성곽이 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18) 손영식은『한국의 성곽』에서 평산성을 성곽을 축조한 지형이 평지와 산지를 함께 포함하거나 산지를 배후로 하여 해안이나 강안지역에 조성한 성곽으로 정의하였고, 강두용은「朝鮮時代 島嶼地域 邑城에 대한 硏究」에서 구릉지와 평탄지를 각기 일부씩 포함하고 있는 지세에 축조된 성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제주읍성 역시 구릉지와 평탄지에 축조되어 경사를 이루는 지리적 조건으로 볼 때 평산성 형태로 축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도면 1> 제주읍성 위치도[19]

이러한 평산성 형태의 성곽 축성은 해안으로부터 침입해 오는 외부세력을 쉽게 조망할 수 있으며 지형을 이용한 방어 전선을 펴는 데 이점이 있다. 평산성의 형태는 방형이나 원형의 형태로 조성된 자연지세형이 많다. 이는 평지의 공간 확보와 방어에 유리한 산지의 지형적 이점을 함께 갖는 성곽으로 해안 및 하천에 인접한 구릉지에 조성된 성곽이나, 평야지대의 솟아오른 야산에 마련된 성곽도 이에 해당한다 하겠다.

대부분의 성곽 축성은 외적을 효과적으로 방비하기 위해 자연지세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수의 인원으로도 많은 외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축성되었는데 제주읍성 역시 효율적으로 제주를 방어하기 위하여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축성되었으며 또한 성곽에 대한 증개축을 하였다.[20]

---

19)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제주성지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제주시, 2013, 108쪽.

20) 제주에 왜구의 침략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제주읍성이 방어시설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는데 선조 32년(1599)에 홍천경이 지은 『決勝亭上樑文-繁略記』에 의하면 선조 25년(1592)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제주목사 이경록이 왜구 침략에 대비해 해안방어에 전략하는 한편 제주읍성을 견고하게 보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결승정은 이경록 제주목사가 제주읍성 동북쪽에 있는 海山臺에서 戰勝을 다짐하고 武運을 비는 뜻에서 세운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지방기상청 청사 신축부지내 매장문화재 표본조사(부분완료) 보고서』, 2013, 14쪽). : 제주읍성내 결승정이 위치한 곳은 해안과 성 안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지형적으로 경사가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지형을 이용한 방어 전선을 구축하여 왜구에 대비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평산성 형태로 축성된 읍성의 장점으로 제주읍성 역시 평산성 형태로 축성되어 이러한 지형을 적절히 이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고고학적 환경

제주읍성이 축성된 위치는 이도·일도·삼도동인 제주의 중심부에 해당하며 동쪽의 산지천과 서쪽의 병문천 사이에 축성되었다. 이들 하천은 제주시 중앙으로 흐르는 하천으로 선사시대부터 집단 취락지가 형성되었고 실제로 하천 인접한 위치에서는 선사시대 유적이 많이 출토되고 있다. 이는 해안과 인접하고 있어 풍부한 해산물을 확보할 수 있으며 수자원이 풍부하여 음용수를 쉽게 취득할 수 있어 사람이 거주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21]

이 지역의 전체적인 지형은 남쪽에서 북쪽인 해안쪽으로 단을 지며 경사져 내려가고 있다. 제주읍성의 위치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선사시대 이래 제주도의 대외교류 창구와 같은 역할을 하였으며 정치,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한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전의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해 제주읍성 서쪽으로는 월성로유적과 용담동 분묘유적, 그리고 다수의 지석묘와 최근에 사적으로 지정된 용담동 유적이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삼양동 유적, 삼화지구 유적 등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유적이 광범위하게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신석기시대 유적은 2003년 발굴조사된 제주국제공항착륙대 확장부지내 유적에서 고산리식토기를 비롯해 타제석촉, 침선문계토기편 등 다량의 유물이 확인되어 신석기시대 초기부터 이 일대에 주민의 생활흔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22], 이 외에도 어영유적, 삼양동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제주읍성 주변에 신석기시대 유적이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동기시대 유적으로는 용담동 분묘유적, 월성로 유적 그리고 삼화지구 유적이 이에 해당한다. 용담동 분묘유적에서는 무문토기와 석기류, 월성로 유적에서는 생활유적인 주거지 및 수혈유구와 직립구연토기, 지석, 고석 등이 출토되었다. 또한 삼화지구 유적에서는 장방형 주거지를 비롯하여 다수의 수혈유구와 무문토기, 마제석검, 옥제품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

21)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시(동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설계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010, 12쪽.

22) 탐라매장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2008, 4쪽.

제주읍성 안에도 탐라시대 및 조선시대 관아, 그리고 제주읍성의 부속시설과 관련된 유적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우선 삼도동 제주목관아지내 유물산포지에는 중층의 유적이 구성되어 조선시대의 담장지와 주춧돌, 기와, 도자기, 질그릇 파편들이 눈에 띄며 그 아래 층위에서 탐라시대의 평면 타원형 냇돌 무더기가 확인되기도 했다. 삼도동 유물산포지의 층위 퇴적 상태를 보면 탐라시대-조선전기초-조선전기말-조선후기-일제 강점기 문화층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다.[23] 즉 제주목 관아 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의 관아지 아래층에서 확인되고 있는 원형 냇돌 무더기 등 탐라시대 유구 및 유물 등으로 추정할 때 8세기 이후 탐라국 시대 대형 취락지가 이곳에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건입동 유물산포지는 산지천 하류 동쪽 부분으로 지금은 주택가와 교회가 들어서 있지만 예전에는 제주읍성 관련 부속시설인 공신정과 삼천서당 그리고 제주읍성 동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된 구역이다. 최근 기상청 확장공사에 따른 공신정 옛터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석과 기와 및 자기편 일부가 발견되었다.[24]

이상의 사실로 보아 제주읍성이 축성된 위치는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 다양한 유적군이 형성되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현재에도 많은 유물 및 유구가 출토되고 있다.

실제로 각종 건설공사 및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주읍성과 관련된 유물 및 유구들이 출토되고 있는데 특히 제주읍성 남문이 위치했었던 곳과 인접한 위치에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곽 기단 석렬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석렬의 모습은 다음의 <사진 1>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발굴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남쪽 경계면에서 제주읍성 내탁면의 기단 석렬의 일부가 확인되었고 조선시대의 자기편, 백자편, 청자편과 탐라시대 적갈색경질토기 등이 퇴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나와 있다.[25] 따라서 출토된 유물과 조사결

23) 제주시, 『文化遺蹟分布地圖 -增補 濟州市-』, 2011.
24)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지방기상청 청사 신축 부지 내 매장문화재 표본조사(부분완료) 보고서』, 2013, 16쪽 참조.
25) 탐라매장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2008, 10～12쪽 참조.

과를 토대로 유추해 볼 때 민가 보다는 남문과 관련된 관아 시설 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위치가 남문과 인접한 곳이고 출토된 자기편들을 볼 때 당시 여건상 민가에서 나올 수 없는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 1> 제주읍성 남문 인근에서 출토한 기단 석렬 모습[26]

그리고 제주읍성 서문과 인접한 위치에서도 성곽 외벽 기단부가 조사과정에서 확인이 되었는데 입회조사 보고서를 보면 기단부의 규모는 1단으로 길이 5.9m, 높이 0.6m이며 성곽의 폭은 도로 너머로 연장되어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이곳은 제주읍성 서문과 인접한 위치이며 서문 옹성 옛 길이 잘 남아 있는 곳이다.[27]

3. 초축과 古城과의 관계

1) 조선시대 이전 제주읍성

제주목은 제주도의 중심지로 고려 숙종 10년(1105) 이후에는 大村縣이 설치된

26) 탐라매장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2008, 14~15쪽.
27) 제주고고학연구소, 『제주시 삼도2동 853번지외 3필지 문화재 보존조치(입회조사) 결과보고서』, 2013.

곳이었고 조선 태종 16년(1416) 이후에도 제주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제주도 통치의 거점 지역에 통치를 위한 시설 즉, 성곽이 있었을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제주성이 언제 처음 축성되었는지 분명하게 밝혀주는 자료는 아직까지 없다. 다만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참고가 된다.

> 제주도안무사 오식과 전 판관 장합 등이 그 지역의 事宜를 올렸다. 啓聞은 이러하였다. "아뢰기를 제주에 郡을 설치하던 초기에 漢拏山의 四面이 모두 17縣 이었습니다. 北面의 大村縣에 성을 쌓아서 本邑의 東西道로 삼고, 靜海鎭을 두어 軍馬를 모아 연변을 방어하였고, 東西道의 都司守는 각각 부근의 군마를 고찰하고 牧場을 겸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크고 백성은 조밀하고 소송이 번다합니다. 東西道의 산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목사가 있는 본읍을 왕래하려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사 때에 왕래하는데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28]

위 기록은 『太宗實錄』에 제주도안무사 오식과 전 판관 장합 등이 3읍 분리의 필요성을 올린 기록의 일부이다. 이에 따라 조정에서는 태종 16년(1416) 대정·정의 두 현을 신설하였고 1목 2현의 三邑體制가 형성되었다.[29]

위 기록에 보면 '제주도에 郡을 설치하던 초기 四面에 17개의 縣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北面 大村縣의 중심지에 성을 쌓았다'는 기록과 '조선 태종 11년(1411) 정월에 제주읍성을 보수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태종 이전 제주에 이미 城이 축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30]

또한 『新增東國輿地勝覽』 濟州牧 古跡條에 '州城 서북쪽에 옛 성터가 있다'[31]는 기록과 『南宦博物』에 '제주성 서북쪽에 古城의 터가 남아있다'는 기록으로도 이미 제주에 성이 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나오는 '州城 서북쪽의 옛 성터'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지만 조선시대

---

28) 濟州都安撫使吳湜 前判官張合等 上其土事宜. 啓曰 "濟州置郡之初, 漢拏山四面凡十七縣. 北面大村縣築城, 以爲本邑 東西道置靜海鎭, 聚軍馬沿邊防禦, 而東西道都司守, 各以附近軍馬考察, 兼任牧場. 然地大民稠, 訴訟煩多, 東西道山南接人往來牧使所在本邑, 非徒辛艱, 農時往返, 其弊不小(『太宗實錄』 16年 5月 丁酉條 6日).

29) 이는 제주도안무사 오식과 전판관 장합이 올린 장계에 따라 임금이 그대로 따르면서 제주목은 대촌현을 본읍으로 삼고 신촌현, 함덕현, 김녕현, 귀일현, 고내현, 애월현, 곽지현, 귀덕현, 명월현을 소속시켰으며, 정의현은 정의현을 본읍으로 삼고 토산현, 호아현, 홍로현 3현을 소속시켰고, 대정현은 대정현을 본읍으로 삼고 예래현, 차귀현을 각각 소속시켰다.

30) 제주시·한라일보사, 『잊혀져 가는 문화유적-제주시편』, 2002, 45쪽.

31) 古城 州城西北有古城遺址(『新增東國輿地勝覽』 (1530) 濟州牧 古跡條).

제주읍성 이외에도 그 이전에 쌓은 오래된 성터가 『新增東國輿地勝覽』의 편찬 당시까지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성이 곧 구전으로 전해오는 '묵은성' 즉 '古城'일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토대로 제주에 고려의 군이 설치되던 시기에 이미 성이 축조되었고, 제주읍성은 탐라국시대 성곽을 이용하는 선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32]

제주시내에 城이 축성된 시기에 대해 '제주에 郡을 설치하던 초기에 한라산 四面이 17縣이고 北面의 大村縣에 성을 쌓아서....'라는 기록이 주목된다. 즉, 『高麗史』地理志에 '고려 숙종 10년(1105) 乇羅를 고쳐서 耽羅郡으로 하였고, 毅宗時縣令官으로 삼았다'라는 기록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33] 탐라국이 소멸되고 고려의 군현으로 편입된 시기는 1105년임이 틀림없다. 다만 '北面의 大村縣에 성을 쌓아서 本邑의 東西道로 삼고....' 라는 기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고려의 군현으로 편입된 시기인 1105년으로 보는 주장[34]과 李元鎭 『耽羅志』의 기록에 나온 충렬왕 26년인 1300년으로 보는 주장이 있다.[35]

한편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에 나오는 州城 서북쪽의 옛 성터로 추정되는 '무근성'은 지금의 삼도2동에 위치하였다고 전한다. 무근성이라 불리는 지역은 바로 조선시대 축성한 제주읍성의 서북쪽에 해당하는 곳이다.

'무근성' 이라는 명칭은 새로 축조한 성보다 먼저 쌓은 오래된 성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묵은성'이라 불리는 곳은 옛 성이 있었던 곳인 것이다. 이에 관하

---

32) 이에 대해 김일우는 '묵은성' 일대 城의 축조 시기는 제주 지역이 '耽羅' 등으로 불리고, 그 정치적 지배자가 문헌에서도 확인되는 '國主'·'佐平' 등이라 일컬어지며, 한반도 육지부의 삼국과 아울러 일본 및 중국 지역과도 자율적으로 교역을 행하던 탐라국 시대에 해당하는 5세기~7세기 후반 무렵일 것으로 추청하였다. (김일우, 「조선시대 이전 耽羅國 중심 마을의 형성과 변천 : 濟州牧官衙址 일대를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21권제3호,한국사진지리학회, 2011, 178쪽.
그리고 제주도, 『제주의 방어유적』, 1996에서는 김두봉, 『제주도실기』의 기록을 인용하여 제주城 초축 시기에 대해 고려시대 원종 11년(1270) 9월에 "관군을 치기 위하여 진도의 삼별초 측에서 동년 11월에 李文京을 明月浦로 상륙시켜 제주를 점령하도록 하였고 제주성을 지나가기 위하여 제주성 星主 高仁旦에게 성문을 열어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지만 고인단이 이를 거절하여 성문을 굳게 지켰으므로 삼별초는 성을 우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록과 관련된 근거 史料는 없다.

33) 肅宗十年, 改乇羅爲耽羅郡, 毅宗時爲縣令官(『高麗史』 卷 57, 地理志 2, 耽羅縣條).

34)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濟州牧官衙址』, 1993, 36쪽.
양상호, 「舊韓末 濟州邑城의 道路體系에 관한 硏究」, 『건축역사연구』 제20권제6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11, 170쪽.

35) 設東西道縣, 縣村卽貴日, 高內, 涯月, 郭支, 歸德, 明月, 新村, 咸德, 金寧, 狐村, 洪爐, 猊來, 山房, 遮歸等地也, 大村卽設戶長三人, 城上一人, 中村戶長三人, 小村一人(李元鎭, 『耽羅志』, 忠烈王 26年, 庚子).

여 『增補耽羅誌』에도 “古州城은 州城 西北에 古城基址가 有하니 洞名을 陳城이라 稱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참고할 수 있다. ‘무근성’이 있던 곳을 ‘陳城洞’이라고 표기한 것은 ‘陳’의 뜻이 ‘묵은 또는 오래된’이므로 ‘陳城’은 묵은 성 또는 오래된 성 즉 古城이라고 풀이할 수 있는 것이다.[36] 결국 조선시대 제주읍성 축성 이전에 이미 오래된 성, 묵은성이 있었고, 이는 고려시대에 축조된 것이었다고 추측하여도 무리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묵은성이 조선시대 제주읍성의 서북쪽에 있다고 하였으므로, 조선시대의 제주읍성은 묵은성의 동남쪽에 새로 쌓은 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묵은성이 훼철된 시기와 새롭게 묵은성을 대신해 성을 쌓은 시기가 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다.

2) 조선시대 제주읍성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왜구의 침략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각 고을에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특히 바닷가와 가까운 지역인 沿海지역에 피해가 극심하여 왜구의 침략을 면한 지방이 거의 없었다. 조선조에 들어와서도 왜구의 침략이 계속되자 태종 15년(1415)부터는 沿海邑城 축조에 적극 관심을 가져 실제로 下三道에서 축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는 왜구를 해안선에서 막아 피해를 줄이고 백성을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방어책에서 나온 것이다.

세종대에 이르러서는 왜구의 피해가 많았던 충남·전라·경상도의 下三道에 兵曹判書 崔閏德을 都巡撫使로 삼아 중점적으로 읍성을 축성하여 왜구의 침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되었다. 이 당시 崔閏德이 마련한 「各官城子造築條件」[37]에

36) ‘묵은성’의 호칭 유래에 대해 김일우는 ‘묵은성’ 호칭이 고성이 있었다는데서 연유했으며 이는 광무 3년(1899) 편찬『濟州郡邑誌』 수록의「濟州地圖」 등에 ‘陳城洞’이 표기되어 있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진성동’은 ‘묵은성골’의 한자 차자표기로서 ‘陳’은 ‘묵은’의 훈독자, ‘城’은 ‘성’의 음가자, ‘洞’은 ‘골’의 훈독자 표기인 것으로 풀이했다. (김일우, 앞의 논문, 2011, 178쪽 참조).

37) ① 下三道의 각 고을 城子 중에서 방어가 가장 긴요한 연변군현은 山城을 없애고 모두 邑城을 쌓을 것이며, 邑城으로 소용이 없을 듯한 것은 이전대로 山城을 수축하도록 한다.
② 各 고을에서 城을 축조할 때에는 各其 그 부근의 陸地州縣 3~4읍 혹은 5~6읍을 限度로 아울러서 점차로 축조하게 한다.
③ 民戶數가 적고 또 城을 쌓을 수 없는 各 고을은 인근 고을의 城子로 幷入케 한다.
④ 各 고을은 使用이 가능한 舊城이 있으면 그대로 修築하고, 사용이 가능한 舊城이 없으면 근처의 새로운 城基를 택하여 축조한다.
⑤ 各 고을의 堅實하지 못한 城子가 있으면 各其 戶數의 多少에 따라 退築하거나 축소하여 편의에 따라 개축한다.
⑥ 各 고을의 城子를 일시에 다 쌓을 수 없으니 각기 城子의 大小를 헤아리고 마땅히 연한을 정하여 견실하게 축조한다.

서는,

> "下三道 각 고을의 성 중에 그 방어가 긴요한 沿邊의 郡縣들은 山城을 없애고 모두 邑城을 쌓을 것이며, 읍성으로 소용이 없을 듯한 것은 이전대로 산성을 수축하게 할 것이며(중략) 각 고을에 쓸 만한 옛 성이 있으면 그대로 수축하고, 쓸 만한 옛 성이 없으면 가까운 곳에 새로운 터를 가리어 신축하게 할 것이다."[38]

라 하여 읍성을 축조할 때 부근 내륙 주현의 축성군을 동원하여 점차로 축조하되 가능한 옛 성을 수축하여 활용토록 하였다. 또한 「各官城子造築條件」에는 "쓸 만한 옛 성이 있으면 그대로 수축하고, 쓸 만한 옛 성이 없으면 가까운 곳에 새로운 터를 신축하게 할 것이다"라 기록되어 당시 沿海邑城의 축조에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연해읍들은 산성 대신 읍성을 쌓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산성입보에서 읍성입보를 통한 적극적인 왜구에 대한 방어 정책이 시작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39]

다만 제주도의 읍성은 앞에서 살펴본 沿海邑城 築城배경과는 달리 태종 16년(1416) 이후 제주목·대정현·정의현으로 분리 되면서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군사적인 기능과 행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제주읍성을 제외한 2개 城이 축성되어 沿海邑城의 축조 양상과는 차이가 있다. 물론 읍성의 축성목적은 동일할 수 있으나 시기 및 규모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주읍성은 기존에 있었던 성곽을 수축한 것이기 때문에 축조 양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에 보면 제주읍성이 연해읍성과 둘레의 길이가 훨씬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읍성들은 모두 새롭게 성을 쌓은 것이지만 제주읍성은 앞서 보았듯이 분명히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성을 수축하여 쌓은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기존에 축성된 성을 바탕으로 수축을 하였기 때문에 규모 역시 연해의 읍성보다 길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축성 시기에 있어서도 제주도의 읍성을 제외한 연해읍성과 비교해 볼 때 제주읍성의 수축 시기와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그 외 여장 및 치성의 개수에서도 훨씬 제주읍성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 규

38) 下三道各官城子內, 防禦最緊沿邊郡縣, 則除山城, 皆築邑城, 其無可用邑城者, 仍修山城(中略) 各官有可用舊城, 則仍修之, 無可用舊城, 則擇近處新基築之(『世宗實錄』 卷 43, 11年 2月 丙戌條).
39) 강두용, 앞의 논문, 2008, 47쪽.

모가 다른 읍성보다는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1> 제주읍성과 연해읍성과의 비교[41]

읍성 명	축성시기	규 모		성문	치성	여장	소재지
		둘레	높이				
제주읍성	태종 11년(1411) 수축	4,394척	11척	三門	27	404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도·삼도 일원
대정읍성	태종 18년(1418)	2,647척	28척	三門	5	240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일원
정의읍성	세종 5년(1423)	2,986척	24척	三門	9	180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원
남해읍성	세조 5년(1459)	2,876척	13척	四門	18	590개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서변동 일원
진도읍성	세종 22년(1440)	3,400척	11척	三門	16	58개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일원
면천읍성[40]	세종 21년(1439)	3,225척	11척	三門	7	56개	충청남도 당진군 면천면 성산리 일원

제주읍성에 대한 기록이 처음 사료에 나타나는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서인데, 다음의 기록들이 그것이다.

A-① 제주에 큰비가 내렸다. 물이 濟州城에 들어와 관사와 민가, 곡식이 떠내려가며 잠긴 것이 절반이 되었다.[42]

A-② 太宗이 濟州城의 修築을 命하였다.[43]

40) 면천읍성의 둘레에 대해서는 『世宗實錄』에서는 3,235척이라 하여 『文宗實錄』의 3,225척 보다 10척이 길다. 기록상 수치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필자는 『文宗實錄』의 기록을 인용하여 표를 작성하였다.

41) 강두용, 앞의 논문, 2008, 58쪽 참조.

42) 濟州大雨水入 濟州城 漂溺官舍民居 禾穀殆半(『太宗實錄』 卷 16, 8年 8月 甲午條).

43) 命修築濟州城(『太宗實錄』 卷 21, 11年 1月 甲子條).

A-①번의 기록은 제주성의 수축을 명하기 전인 太宗 8년 8월의 기록이다. 제주에 큰 비가 내려 물난리로 인해 성 안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최소한 조선 太宗 이전에도 제주읍성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기록이며, A-②번 기록은 홍수로 인하여 훼손된 제주성을 太宗 11年 1月에 修築하도록 命하였다는 기록이다. 이 두 기록만 보아도 제주읍성은 태종 8년(1408) 8월 이전에 이미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려 숙종대 무렵에 쌓은 묵은성을 그대로 계속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새로 쌓아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고려시대 제주가 군으로 편입될 무렵 쌓은 성인 '묵은성'의 동남쪽에 새로이 성을 쌓아 제주도의 거점으로 삼은 것이다. 하지만 성을 새롭게 축조한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알기 어렵다.

아마도 고려시대 어느 시기엔가 새로운 성을 쌓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13세기 후반 삼별초의 제주 입도 무렵이나 14세기 중반 고려가 탐라총관부를 혁파하고 제주를 다시 직접 지배할 무렵이 아닌가 한다. 이중 삼별초를 진압하고 원이 직할 통치기구인 탐라총관부를 설치한 시기보다는 고려가 탐라총관부를 몰아내고 제주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새롭게 확립하는 시기인 공민왕 23년(1374) 무렵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고려는 1273년 이후 제주에 대한 지배권을 원에 넘겨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즈음해서 새로운 성을 제주에 쌓을 여력이 없었을 것이고, 이후 1374년까지 100년 동안은 성을 새로 쌓을 수도 쌓을 까닭도 없었다. 그렇다면 새롭게 성을 쌓을 수 있었던 시기는 1374년 무렵 또는 이후일 것임은 자명하다. 고려 정부는 제주지역의 지배권을 되찾아오면서 제주지배와 방어의 중심지로서 새로운 성을 쌓을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쌓은 성은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한 초기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그러므로 조선은 태종 8년 8월 수해로 성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공민왕대 쌓은 제주읍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다가 수해로 성이 무너지자 바로 수축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한 채로 사용하였으나, 왜구의 침입 등으로 연해 고을들이 위험에 처하자 제주읍성의 수축 필요성도 제기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수해를 입은지 3년 후인 태종 11년 1월에 성을 수리하여 다시 쌓도록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4. 증개축 배경

제주읍성은 태종대에 고려시대에 새로 쌓은 성을 수리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여러 차례 증개축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계속하여 수리하고 또한 증개축을 하면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제주읍성은 제주목을 중심으로 동쪽의 산지천과 서쪽의 병문천까지 읍성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이는『新增東國輿地勝覽』의 山川條에 "주성의 동쪽에 산저천이 있고 주성의 서쪽에 병문천이 있다"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44] 원래 제주읍성 안에는 식수원이 없었다. 그러나 읍성의 증축을 통해 식수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록이 참고된다.

B-① 석성으로 그 둘레가 4,394자, 높이 11자이다. 성 내에는 샘이 없고 성의 남쪽 큰 돌 아래에 큰 구멍에서 물이 솟아나니, 그 이름은 嘉樂貴이고 깊이는 한 장 정도 이다. 물 흐름을 끊어 별도로 중성을 쌓아 성안 사람에게 물을 대었다.[45]

B-② 곽흘목사가 동성을 물려 쌓아 지금의 가락천이 성 안에 있다. 또 산저천도 있다. 동·서·남 3문이 있으며 남북으로 수구 2문과 격대 27개소 타첩 404개가 있다. 원래 大村으로 고양부 3성이 살던 곳이다.[46]

B-①의 기록은『新增東國輿地勝覽』의 제주읍성 관련 기록으로 읍성의 규모와 성 내에 물이 없어 물을 구하기 위하여 별도로 성을 쌓아 성 안 사람들에게 식수를 구하여 물을 공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며, B-②의 기록은『耽羅志』의 제주읍성 관련 기록으로 성 안에 식수가 없어 명종 20년(1565) 곽흘 목사가 동성을 뒤로 물려 쌓아 가락천과 산지천을 성 안으로 담아 식수문제를 해결한 내용이다. B-①번의 기록에 나오는 가락귀는 가락천을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읍성의 입지조건으로 水泉이 풍부한 곳을 조건으로 제시하

44) 山低川在州城東 屛門川在州城西(『新增東國輿地勝覽』 卷 38, 山川條).
45) 石築, 周四千三百九十四尺, 高十一尺. 城內無水, 城南大石下, 有大穴水湧出, 名嘉樂貴, 深可丈許. 截流別築重城, 成中人取汲(『新增東國輿地勝覽』 卷 38, 城郭條).
46) 嘉靖乙丑, 郭屹爲牧使時, 退築東城, 嘉樂泉, 今左城內. 又有, 山低泉. 有東南西三門, 又有南北水口二門, 擊臺二十七, 垛堞四百四. 本大村, 三姓所居之地(李元鎭,『耽羅志』, 濟州牧 城郭條).

였는데 성 안에서 사람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식수다. 방어를 아무리 철저히 하여도 식수가 없으면 성 안에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없으며 특히 성이 포위되고 물이 나오는 샘이 성 안에 없을 경우에는 방어시설로서의 기능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성 안에 식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식수원 확보를 위해 읍성의 증축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다음 기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C-① 최경례가 아뢰기를,

"제주의 대정성 안에는 모두 샘물이 없고 밖에 작은 시내가 있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甕城을 쌓아서 끌어들이면 급할 때에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該司로 하여금 의논해 아뢰도록 하라."[47]

C-② 兵曹에서 아뢰기를,

"이제 전교를 받아 보건대, '최경례의 친계에 이르기를,「제주와 대정읍성 안에는 모두 우물과 샘이 없는데, 제주는 동문 밖 40여 보에, 대정에는 남문 밖 70여보의 땅에 작은 시내가 있어서 아무리 가물더라도 마르지 아니하니, 청컨대 甕城을 쌓고 물을 성안으로 끌어들여서, 급할 때 대비 하도록 하소서」하였으니, 그것이 적당한가의 여부를 의논하여 아뢰라.'고 하셨는데, 신 등이 참작하여 자세히 살피건대, 두 邑城 안에는 우물이 없으니, 시냇물을 끌어들일 형세와 큰비로 물이 불을 때에 물살에 충돌하여 허물어지는 여부와 성터의 尺數를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우니, 청컨대 濟州牧使로 하여금 친히 살펴보고 馳啓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48]

위 C의 기록은 당시 성종대에 제주목사 최경례가 제주읍성과 대정읍성에는 성 안에 샘이 없어 외침 등 급할 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상소하자 국왕이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대책을 제시하도록 하자 성 근처에 있는 작은 하천의 물을 이용할 방책을 아뢰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주목사로 하여금 직접 살펴보고 처리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다.

---

47)「崔景禮啓曰: "濟州大靜城中, 皆無泉水, 外有一小川, 臣意, '築甕城, 以引入, 則緩急可資矣'" 上曰: "令該司議啓"」(『成宗實錄』 卷 149, 13年 12月 1日).

48)「兵曹啓: "今承傳敎: '崔景禮親啓云: 濟州及大靜邑城內, 竝無井泉, 濟州則, 東門外四十餘步, 大靜則南門外七十餘步之地, 有小川, 雖旱不竭, 請築甕城, 引流入城中, 以備緩急, 其議便否以啓' 臣等參詳兩邑城內, 無井有川, 引流形勢, 及大雨水漲時, 衝毁與否, 城基尺數, 難以遙度, 請令濟州牧使, 親審馳啓"從之」(『成宗實錄』 卷 149, 13年 12月 4日).

성종은 식수원 확보 대책을 성 주위를 흐르는 하천의 물을 이용하면 될 것이라는 대책에 따라 하천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일 방법으로 하천을 둘러싼 성을 쌓을 것을 지시한 것이다. 이는 성의 외부 확장을 통해 기존에 천연 해자 역할을 하던 하천을 성 안에 둠으로써 방어에 필요한 해자 기능 대신에 식수원 확보 문제에 더 중점을 둔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성 안에 하천을 끌어들이는 방법은 물길을 성 안으로 돌리거나 물길 밖으로 성을 쌓는 방법이 있는데, 이 중 성의 규모를 확장해서 하천 너머까지 성을 쌓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러한 대책에 따라 제주읍성은 증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원래 성 동쪽 바깥에 있던 산지천 건너편에 성을 쌓아 비상시에 식수원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축성 규모나 홍수시에 하천으로 흐르는 물 때문에 성벽이 무너지거나 훼손될 우려[49] 등을 제주목사가 직접 감안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읍성의 규모는 자연스럽게 확장되었다.

제주읍성은 나중에도 계속 수축되는데 이는 하천이 성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다음 기록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

D 김영수 목사가 옛터로 인하여 간성을 축조하여 그 폐단을 막았다. 헌종 13년 이의식 목사가 간성을 쌓았고 수복문, 중인문을 고쳐 다리로 만들었다.[50]

D의 기록은 정조 4년(1780)에 김영수 목사가 증축 이전의 제주읍성 옛터에 성을 쌓아 간성을 만들어 하천의 범람 등 홍수에 의한 피해에 대비하였고, 헌종 13년(1847)에는 제주목사 이의식 역시 간성을 더욱 보강하여 쌓고, 간성에 세운 문루인 수복문을 중인문으로 고치고 다리를 만들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강수량이 많고 특히 여름철에는 태풍까지 동반하여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를 동반하는 폭우가 자주 내린다. 이런 제주도의 기후적 특성 때문에 성 안에 하천이 있을 때 범람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성종대에 수원 확보를 위해 증축을 할 때도 제주목사에게 홍수 등의 피해에 대해 고려하여 증축하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정조와 헌종 연간에는 옛 제

49) 이미 제주읍성은 비바람과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었다. 일례로 세종 즉위년 여름 8월에 태풍과 호우로 인해 읍성 동문이 무너지고 관사와 민가가 부서지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었다(『世宗實錄』 卷 1, 卽位年 8月 22日).

50) 正祖四年, 牧使金永綏, 因舊基築間城, 以防其弊. 憲宗十三年, 牧使李宜植, 間城加築, 受福門, 重仁門, 改橋(談水契, 『增補耽羅誌』).

주읍성의 동쪽 성벽 자리에 간성을 쌓아 물이 성 안으로 범람하는 것에 대비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개축 원인들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도 이미 지적이 된 바 있고, 앞에서 사료를 통해 검토하였듯이 상당히 타당한 지적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증축 원인들이 있을 것이다. 단지 수원지 확보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주읍성을 증개축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특히 본래 성곽의 주기능인 방어력의 강화를 위한 증개축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명종 20년(1565) 곽흘 목사가 동성을 뒤로 물려 쌓아 가락천과 산지천을 성 안으로 담아 식수문제를 해결한 것은 단순히 식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증축은 아니었다.

『耽羅誌草本』과 『增補耽羅誌』의 아래의 기록에는 명종 20년(1565)에 곽흘이 제주목사로 부임하자마자 성지를 두루 살피고는 방어를 위해 성 쌓는 일을 조정에 장계로 알리고 東城을 퇴축하여 증축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 을묘년(명종 10년, 1555) 여름에 해적이 세력을 믿고 쳐들어와 성을 포위하고, 높은 곳을 근거지로 삼아 압박하였다. 성 안에 화살과 돌을 섞어 쏘아대며, 군진의 허실과 사졸의 가약을 촛불에 비추어 보듯 명확하게 알았다. 난을 겪은 이후에 城堡의 보수는 마땅히 치밀했어야 할 것이나, 오히려 부족함이 있었다.
>
> 지난 을축년(명종 20년, 1565) 겨울에, 우리 사또 합하 포산 곽흘공께서 지방관으로 임명되어 남쪽 고을 제주를 맡으셨다. 경계를 엄히 하고 군정을 돌보는 틈에 성지를 두루 살펴보니 “東城의 축조만 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락쿳내도 옛날에는 넘쳐흘렀으나 지금은 어찌하여 말라버렸는가. 혹시라도 성이 포위되는 변고가 있으면 병사들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장차 어떻게 구원할 것이며 높은 능선으로부터의 포격 또한 어떻게 막을 것인가” 라고 개탄하셨다.
>
> 곧 서슴없이 성 쌓는 일을 장계로 조정에 알렸다. 일꾼들이 몰려와서 산지포구까지 성을 물려 쌓으니 성벽은 높고 雉堞은 우뚝하며 냇물은 기운차게 흘렀다. 옛 성의 무너진 雉堞과 낮고 좁은 擊臺도 한가지로 모두 새로워졌으니 金城湯池의 험준함을 그 누가 감히 업신여기겠는가? 아아 이 고을은 남쪽의 중요한 변방으로서 곽흘 목사의 현명함은 옛 명장보다 뛰어나니 무기를 갖추고 병사를 독려함은 특별히 중요한 일이 아니다.....(후략)[51]

앞의 기록은 명종 20년(1565)에 제주목사 곽흘이 東城을 퇴축한 이유가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1555년 을묘왜변을 겪은 후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 성을 보수하여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상소한 것이다. 특히 외적이 성을 공격할 때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성첩을 높이 쌓아야 하고 격대도 높고 넓게 만들어 성을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과 함께, 성 안에서 농성할 때 식수가 없다면 병사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외침을 당하여 병사들이 오랫동안 항전하려면 성 안에 식수가 충분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원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읍성의 동성을 가락쿳내 즉 가락천 동쪽으로 내어 쌓아 증축함으로써 성의 한가운데로 냇물이 흐르도록 하여 마실 물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처럼 제주읍성의 증축은 식수원의 확보를 통해 성 안에서 장기간 농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외침에 대비한 성곽 방비를 단단히 하여 제주를 방어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제주읍성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차례 증개축으로 규모가 확장되면서 제주도 중심부의 읍성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접어든 이후 성곽의 필요성이 사라지자 관리가 부실해졌고, 제주읍성을 비롯한 대다수의 읍성들이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헐려나가기 시작했다. 1910년대에는 문루가 퇴락하여 점차 허물어졌고, 1920년대에는 산지항 築港工事를 진행하면서 바다를 매립하는데 필요한 석재를 읍성의 성벽에서 채취함으로써 성벽 대부분이 사라져 버렸다. 그리하여 지금은 오현단 옆의 동치성 및 기상청 측면의 담장, 구 제주대학교 병원 주변 등 일부 구간에만 성벽이 남게 되었다.

제주읍성의 훼철과정은 김석익의 『耽羅紀年』 부록편에 그 과정이 전해지는데, 앞서 살펴보았으나 구체적으로 보면 1914년 연상루, 진서루, 중인문 등 여러 문루가 훼철되고, 1918년 정원루가 훼철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1923년 東城에 측후소가 개설되었고, 1926년부터 시작된 산지항 축항공사에 제주성의 3면을 헐어 산지항을 축항하였으며, 1927년 홍수로 인하여 남·북수구의 홍문이 붕괴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52]

---

51) 『增補耽羅誌』, 『耽羅誌草本』 黃祐獻의 記.
52) 金錫翼, 『耽羅紀年』, 附錄.

이상의 제주읍성의 증개축 과정을 아래의 표로 정리해보면 제주읍성의 증개축 배경 및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표 2> 제주읍성의 증·개축 현황

연도	증·개축 배경 및 내용	관련사료
1411년(태종 11)	제주성 수축	『太宗實錄』
1481년(성종 12)	식수를 구하기 위해 가락천에 별도로 중성 축조	『新增東國輿地勝覽』
1565년(명종 20)	곽흘 제주목사가 물의 범람을 막고 군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동성을 퇴축하여 성곽을 확장시킴	『耽羅志』 『耽羅誌草本』 등
1599년(선조 32)	성윤문 제주목사가 5척을 가축하고 높이 2척 높임	『南槎錄』
1780년(정조 4)	김영수 제주목사가 물의 범람을 막기 위해 간성 축조, 간성 2문 건립	『增補耽羅誌』
1847년(헌종 13)	이의식 제주목사가 간성 가축, 북수구 퇴축, 天一亭 건립,	『增補耽羅誌』

Ⅲ. 제주읍성의 구조

1. 제주읍성의 규모

읍성의 규모는 행정적인 성격상 지위나 계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축성 지역의 주민의 수나 지형적인 영향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읍성 둘레는 다양하나 대개 3,000尺 내외의 것이 많고 체성의 높이는 평균 10~15척 내외, 여장의 높이는 3~4척, 1타 즉 여장간의 길이는 6~8척 내외가 일반적이다.[53]

성곽의 둘레는 성벽 외벽을 따라 측정하였는데, 성문과 雉, 墩, 臺 등 성곽에 포함된 부대시설 등을 전부 포함한 길이다.

성곽의 규모를 검토 할 때는 둘레, 높이 및 성곽 부대시설 등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성곽의 증축 및 보수, 개축 등 성곽의 변천 과정에 따라 바뀌게 된다.

제주읍성은 1920년대 일제에 의해 제주항 築港工事에 성돌이 사용되면서 성곽 대부분이 훼철되고 지금은 극히 일부만이 남아있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렇지만 사료의 기록과 성곽이 표기된 옛 지적원도를 바탕으로 읍성의 규모를 살필 수 있다.

따라서 사료에 나타난 제주읍성의 둘레 및 높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고 이를 조선시대 사용된 用尺 단위로 환산하여 옛 지적원도에 나타난 성곽의 길이와 비교하여 분석해보면 성곽의 규모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살필 수 있을 것이다.

1) 제주읍성의 규모

제주읍성의 규모에 대하여 처음으로 언급된 기록은『世宗實錄地理志』로 '읍성의 둘레는 910보'라 하고 있다. 다만 이는 둘레에 대한 언급만 나와 있어 읍성의 전

53) 손영식, 앞의 책, 2011, 125쪽.

체적인 규모를 가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규모에 대한 검토는 성의 둘레와 높이 그리고 부대시설 등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世宗實錄地理志』이후 편찬된『新增東國輿地勝覽』과『南槎錄』등 다른 기록에서 제주읍성의 규모에 대한 자세한 기록들이 보이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① 읍성은 석성으로 그 둘레가 910보이다.[54]

E-② 제주읍성은 석성으로 그 둘레가 4,394척, 높이 11척이다. 성 내에는 샘이 없고, 성 남쪽 큰 돌 아래 큰 구멍에서 물이 솟아나니 그 이름은 가락귀이고 깊이는 한 장 정도이다. 물 흐름을 끊어 별도로 중성을 쌓아 성안 사람에게 물을 대었다.[55]

E-③ 목사 성윤문 때 지금의 성으로 개축하였다.(포백척) 그 둘레가 6,120여척, 높이가 13척이다. 격대, 초루, 해자, 조교가 모두 갖추어졌다.(중략) 성채는 북쪽을 바라보고 있지만 동·서·남 3문이 있는데 문에는 모두 초루가 있다. 성 중에는 3개의 큰 물이 있는데 흘러서 개울이 되며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다.[56]

E-④ 제주읍성은 돌로 쌓았는데 그 둘레가 5,489척이고 높이가 11척이다. 격대가 27개소, 타첩은 404개소이며, 동·서·남 세 문이 있다. 북쪽 수구에는 홍문이 있다.[57]

E-⑤ (제주성)은 돌로 쌓았으며 둘레는 5,489척, 높이는 11척이다. 동・남・서 3문과 남・북수구가 있다. 동쪽 성 밖에 가락천이 있고 북쪽 성 밖에는 산저물이 있다. 주성은 본래 남북의 두 내 사이에 있었다. 가정 을축년에 곽흘목사가 동쪽 성을 물러서 축조하니 하나가 성안에 들어왔다. 매양 범람할 때에는 사람들이 사는 집이 번번이 물에 잠기었다. 사람들이 옛터에 도로 쌓고자 하였으므로 지금 경자년 봄에 목사 김영수가 옛터에 간성을 쌓아 그 폐단을 막았다. 길이는 551보이며 높이는 9척이다.[58]

---

54) 邑城 石城 周回九百十步(『世宗實錄』地理誌 卷 151).

55) 石築, 周四千三百九十四尺, 高十一尺. 城內無水, 城南大石下, 有大穴水湧出, 名嘉樂貴, 深可丈許. 截流別築重城, 成中人取汲(『新增東國輿地勝覽』卷 38, 城郭條).

56) 牧使成允文時, 改築今城. 周六千一百二十餘尺, 高十三尺(布帛尺). 擊臺砲樓壕子弔橋諸具. (中略) 城塞北面, 只有東西南三門, 門皆有譙. 城中有三大井, 流而爲川, 嘆旱不渴(金尙憲,『南槎錄』).

57) 州城, 石築周五千四百八十九尺, 高十一尺. 擊臺二十七, 垛堞四百四, 有東西南三門北水九有, 虹門(『耽羅誌草本』城池條).

58) 城池州城,「石築, 周回五千四百八十九尺, 高十一尺. 有東西南三門, 南北水口. 東城外有加樂川, 北城外有山底泉. 州城本在南北兩川之間. 嘉靖乙丑, 牧使郭屹退築, 東城一川在城中. 每致汎濫, 人家輒多, 漂沒民欲還築舊基故, 今庚子春, 牧使金永綬, 因舊基築間城, 以防基弊. 長五百五十一步, 高九尺」(『濟州邑誌』城郭條).

위 기록들을 정리해서 표로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제주읍성의 규모와 시설현황

출전	규모			비고
	둘레	높이	부대시설	
世宗實錄地理志	910보	-		1454년
新增東國輿地勝覽	4,394척	11척	城內無水, 남문루1	1530년
南槎錄	6,120척	13척	격대, 포루, 해자, 조교, 동·서·남 3문에 모두 譙樓 구비	1601년
耽羅志	5,489척	11척	城內2川, 동·서·남3문, 수구2문, 격대27, 타첩404	1653년
東國輿地志	5,489척	-	3문, 수구2문, 격대27, 타첩404, 성내2천	1656년
濟州邑誌	5,489척	11척	동·서·남3문, 남북수구, 間城 둘레 551步, 높이 9尺	1780년
濟州大靜旌義邑誌[59]	10리	11척	타첩404, 동·서·남3문, 수구2문	1793년
耽羅誌草本	5,489척	11척	격대27, 타첩404, 동·서·남3문, 수구2문, 성윤문 목사 5尺 加築	1842년
增補文獻備考	5,489척	11척	격대27, 타첩404, 동·서·남3문, 수구2문	1908년
增補耽羅誌	5,489척	11척	격대27, 타첩404, 동·서·남3문, 수구2문	1954년

<표 3>에 보면 『世宗實錄地理志』에서 읍성의 길이를 910步라 기록하였는데 1步를 6周尺으로 환산할 때 5,460尺이 되고 이를 다시 주척으로 환산하면 1,136m가 된다[60]. 이는 『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된 읍성의 길이 4,394尺 즉 주척 환산 시 914m 보다 1,066尺이 늘어난 길이로 뒤에 나온 기록에 읍성 규모가 축소되는 결과가 도출된다.

이런 오류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에서부터 성곽 周長의 표시가 종전의 '步' 위주에서 '尺' 위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마다

59) 州城石築, 周十里, 高十一尺. 女堞四百四, 城門東西南三處, 水口南北二處, 城外有郭, 重關防而設, 城內有間, 城防川水之泛濫(『濟州大靜旌義邑誌』 城池).

60) 『華城城役儀軌』에 1보는 6주척이고 영조척으로는 3.8이라 나와 있는데 간편하게 1보는 4영조척으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華城城役儀軌』가 작성되기 전 世宗 19년에는 中國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頃畝法을 제정하여 1보를 5주척으로 하였다. 『世宗實錄地理志』에서의 910보를 5주척으로 환산할 때 4,550尺이 되고 이를 다시 주척으로 환산하면 946m, 포백척으로 환산하면 2.1km가 되어 규모상 포백척 보다는 주척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尺’의 종류와 길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기록상의 차이라고 보여진다. 즉 『世宗實錄地理志』의 기록에 사용된 步는 1步 = 6尺으로 환산할 때 尺의 기준치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편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같은 대상에 대한 길이 측정에 있어 지역마다 또는 시대마다 각기 다른 종류의 尺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61]

한편 『南槎錄』의 기록을 보면 ‘按地誌 邑居本古稱大村者 卽三姓所居之地 舊城石築 周四千七百餘尺 高十一尺 [周尺]’이라 하여 옛 성의 둘레는 4,700여척, 높이는 11척으로 그리고 사용된 용척은 주척으로 표기가 되었다. 그리고 『南槎錄』 이전 기록인 『世宗實錄地理志』와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에 대한 용척을 확인해보면 역시 주척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둘레에 대한 기록은 아마도 제주읍성 이전 古城의 둘레에 대한 기록이 아닐까 추정된다.[62] 이랬던 성의 둘레와 높이가 『南槎錄』에는 둘레 6,120여척, 높이 13척이라고 하였다.

이는 『世宗實錄地理志』의 910보 즉 5,460척, 『新增東國輿地勝覽』의 4,390척이라는 기록과 분명 차이가 나고, 성벽의 높이 또한 11척에서 2척이 높아져 13척으로 기록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사용된 용척이 달랐기 때문에 나는 것일 수도 있다.[63] 그러나 『南槎錄』에 ‘그동안 여러 차례 수리하였으나 성벽이 몹시 낮아서 成允文 牧使때 개축하였다’[64]는 기록을 보면 용척의 차이로 인한 기록상의 차이는 아니다.

『南槎錄』에 성벽의 높이가 11척에서 13척으로 높아진 까닭은 제주목사 성윤문이 성벽이 몹시 낮아 2척을 높여 개축하였기 때문이라는 기록은 그릇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성벽을 높인 이유를 분명히 적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南槎錄』 이후의 기록에 성벽이 다시 11척인 것으로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어 의문이

61) 제주산업정보대학 산업협력단, 『정의현성성곽 여장복원연구』, 제주특별자치도, 2010, 257쪽.

62) 세종실록지리지에 표기된 910步의 길이를 5,460尺으로 볼 때 주척으로 환산하면 1,092m이고 신증동국여지승람의 4,394尺을 주척으로 환산하면 878m가 된다. 또한 남사록의 4,700餘尺을 주척으로 환산하면 978m로 오차가 불과 약100m이다. 이 결과로 볼 때 『新增東國輿地勝覽』 山川條 「山低川在州城東 屛門川在州城西」기록에 표기된 古城으로 추정 된다.

63) 포백척에는 五禮(44.75㎝), 遵守(46.73㎝), 經國大典(46.80㎝), 銅四角周(49.24㎝), 戶曹(48.91㎝)의 다섯 가지 척도가 있다. 남사록의 기록과 탐라지에서 증보탐라지까지의 둘레 길이의 차이는 포백척을 사용하였으나 포백척의 용척 중 사용된 용척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제주역사문화진흥원, 『제주성지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제주시, 2013).

64) 中間屢經修繕, 然頗低卑, 牧使成允文時改築, 今城周六千一百二十餘尺, 高十三尺,「布帛尺」(金尙憲, 『南槎錄』).

남는다. 혹 임진왜란 직후인 1599년 부임한 성윤문이 왜란을 겪으면서 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제주읍성의 성벽을 높이는 공역을 시도한 결과가 아닐까 한다. 그런데 읍성의 체성 높이를 2척이나 더 높였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아마도 성첩 즉 여장의 높이를 2척 높여서 성벽의 전체 높이를 11척에서 13척으로 높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체성의 성벽 전체를 높이려면 성첩을 헐어내고 그 위에 체성벽을 2척 더 쌓은 후 다시 성첩을 쌓아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체성벽을 높이는 것은 어려운 문제였다. 그러므로 성첩의 높이를 2척 높여 쌓아 전체적으로 성벽의 높이를 13척으로 맞춘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후 1653년 탐라지의 기록에 성벽의 높이가 11척으로 줄어든 이후 계속 11척으로 일관되게 기록된 것은 기록상의 단순한 오류로 보기는 어렵다. 1599년 2척을 높여 쌓은 성첩이 구조상 적절치 않아 무너지거나 별다른 효용성이 없게 되자 도로 원래의 높이대로 성첩을 허물어 다시 쌓았기 때문에 성벽의 높이가 11척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65] 그리고 한 가지 더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임진왜란 전에 제주읍성에는 여장이 없었으나 이때 여장을 축조하였기 때문에 전체 성벽의 높이가 두 척 올라간 것일 가능성도 있다.

물론 城壁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성벽의 하단에서 상단에 이르는 높이다. 이때는 여장높이는 제외한다.[66] 성벽의 높이는 사용되는 재질과 성돌의 크기, 가공정도, 축성기술, 지형여건 등에 의해 좌우된다 할 수 있다.[67] 하지만 성윤문이 성벽의 높이를 2척이나 올리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체성벽을 2척 높이 쌓는다는 것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여장을 헐어낸 이후에 다시 쌓아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공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체성벽을 높이기보다는 여장을 쌓아 전체적인 성벽의 높이를 높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얼마 후에

---

65) 성윤문 목사의 읍성 증축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록이 참고 된다.
'성윤문 제주목사는 기해(선조 32년, 1599) 3월에 도임하였다. 이 해 겨울에 주성을 더 쌓고 성위에 격대를 설치하였으며 제이정을 성 남쪽에 지었다. 처음으로 남·북수구의 홍예문을 만들었고 대변청을 신설하였다. 각 방호소에도 성을 더 쌓았으며 또 대변청을 신설하였다. 조천에 연북정을 세우고 양 현 및 각 진에는 성 밖의 창고와 군기고를 철거하여 성안으로 들여놓았으며 수전선의 전선 5척을 보고하여 감하였다.'
成允文, 己亥三月到. 是冬加築州城, 城上設擊坮, 作制夷亭於城南. 始造南北水口虹霓門, 新設待變廳. 各防護所加築城亦設待變廳. 朝天新建戀北亭, 兩縣及各鎭撤入城外倉庫軍器庫於城內, 啓減水戰所戰船五隻(張寅植, 1848.3~1850.6,『耽羅誌』).

66) 유형원은 磻溪隧錄에서 城高는「城高習除垛而言」이라 하여 성벽의 높이는 여장을 제외한 높이를 의미한다 하였다.

67) 손영식, 앞의 책, 2011, 338쪽.

다시 성벽의 높이가 11척으로 줄어든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성곽에서 성벽의 높이를 높게 축조할 수 있다는 것은 높은 축성 기술과 축성 재료 특징에 따라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형여건에 따라 큰 영향을 받았다. 제주읍성의 높이는 문헌 기록에는 일정하게 11척이라 기록되어 있다. 이를 포백척으로 환산해보면 5.1m로 실제 잔존하는 성벽의 높이를 실측해보면 3.9m~6.5m로 성벽 위치마다 차이가 있다.[68]

2) 用尺

고건축이나 읍성의 연구에서 척도 문제는 중요한 부분으로 문헌상에서는 尺, 步, 里, 武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고 있다. 따라서 尺 하나만 해도 측량하는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일정한 용척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다.[69]

용척은 읍성 정비, 건축물 계획 등 사회 운영 질서와 상호간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기초적인 기준으로 척도의 단위는 시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사용되어 왔으나 그 길이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화하고 다르게 사용되어 가장 먼저 기준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70]

조선시대에 사용된 用尺은 여럿 있는데 다른 지방의 읍성 위곽의 대부분의 用

---

68) 고영자 편역,『서양인들이 남긴 제주견문록(1845~1926)』, 제주시 우당도서관, 2013, 91쪽.
제주를 다녀간 서양인들이 남긴 견문록에 제주읍성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성벽의 높이는 7.6m(25피트)이고 검은 화산암으로 둘러 쌓여있다"고 하였다. 이 기록은 미국 지리학회지(1890)에 프랑스계 미국인 샤를르 샤이에 롱(Charles Chaille-Long, 1842~1917)이 1888년 9월 제주를 방문하고 작성한 내용으로 성벽의 높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중간 중간 일정한 간격을 두어 망루와 포탑이 올려졌다"고 하여 구체적인 성벽 시설물까지 언급을 하였다. 이 내용들은 그동안 기록에 의존하여 제주읍성 성벽 높이를 파악하던 지금까지 연구를 미터(m) 단위로 환산해 당시 읍성 높이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다만 사료의 기록과 샤를르 샤이에 롱(Charles Chaille-Long, 1842~1917)이 기록한 제주읍성 성벽의 높이 차이가 있다. 이는 아마도 여장의 높이를 포함하거나 제외한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여 지며 서양인의 기록은 가장 높은 지역에 여장을 포함한 수치로 추정된다. 이유는 사료상의 성벽 높이는 대부분 여장을 제외한 성벽 높이이고, 샤를르 샤이에 롱(Charles Chaille-Long, 1842~1917)의 기록은 여장의 높이까지 측정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南槎錄』에 나온 높이 13척을 포백척으로 환산할 경우 약 6m의 수치가 나오며 여장의 높이를 70cm~100cm로 추정하였을 때와 차이가 있어 사료의 기록과는 맞지 않는 수치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지만 미터 단위로 환산한 최초의 기록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

69) 金善範·韓三建,「朝鮮시대 邑城圍郭의 用尺에 관한 硏究」,『國土計劃』第33卷 第2號, 1998, 227쪽.

70) 최성림,「19세기 중엽에서 20세기 초 궁궐 조영에 사용된 용척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尺은 布帛尺이 사용되었다.[71] 이에 대해서 다음 기록이 참고가 된다.

공조에서 아뢰기를,

"각 고을이 저울·斗·升는 각각 그 長官이 바르게 교정하여 나누어 주었으나, 布帛尺의 제도는 일찍이 바르게 교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京外의 尺度가 한결같지 못하여 서로 길고 짧으니, 청컨대 각 고을로 하여금 竹尺을 만들어 올려 보내게 하여, 京市署로 하여금 그 市의 표준 尺度에 준하여 바로잡아 환송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72]

위 기록은 세종조의 성곽에 사용된 여러 용척 중 城基 측정에 布帛尺을 많이 사용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기록이다.[73]

세종 13년 4월에 전국에서 그 지방의 표준이 되는 포백척을 만들어 京市署에 보내게 하여 그러한 포백척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포백척을 만들고, 그 새로 만든 포백척으로 통일하게 되었다.[74] 이후 세종대의 통일된 기준척인 포백척이 성곽 축성 시 사용되었다. 세종대의 척도와 경국대전의 척도 등 조선시대의 척도를 표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4> 조선시대의 여러 척도[75]

척도 종류	세종대 척도		경국대전		비 고
	황종척 기준	cm단위	황종척 단위	cm단위	
黃 鍾 尺	10.0000	34.72	10.00	34.72	
周 尺	5.9929	20.81	6.06	21.04	
營 造 尺	8.9969	31.24	8.99	31.21	
造禮器尺	8.2496	28.64	8.23	28.57	
布 帛 尺(遵守)	13.460	46.73	13.48	46.80	

<표 4>를 보면 경국대전의 각 척도 사이의 길이 관계가 世宗때 고정된 척도 사이의 길이 관계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경국대전이 成宗

71) 金善範·韓三建, 앞의 논문, 1998, 225쪽.
72) 「工曹啓: "各官稱子斗升, 則各其長官平校分給, 而布帛尺體制, 則不曾平校, 故京外尺度不一, 互有長短, 請令各官造竹尺上送, 令京市署, 校其市準尺度還送." 從之」(『世宗實錄』 卷 52, 13年(1431) 4月 7日).
73) 손영식, 「면천읍성(沔川邑城)의 정비 및 복원방안」, 『면천읍성 연구』, 당진군·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1, 289쪽.
74) 박홍수, 『한국사 10, 조선-양반관료국가의 사회구조』, 탐구당, 1984. 539쪽.
75) 박홍수, 앞의 책, 1984. 540쪽 참조.

때의 척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世宗때의 주척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긴 차이가 아닐까 한다. 즉 적용하는 周尺에 따라 차이가 생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읍성의 둘레를 측정하는데 사용된 용척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사료의 기록에 나와 있는 제주읍성 둘레 길이와 1914년 지적원도에 표기된 성곽의 둘레길이, 그리고 현재 추정되는 둘레길이를 측정하여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제주읍성 둘레 길이는 뒤에 나온 기록을 포함하여 대부분이 5,489尺으로 나와 있다. 이를 아래와 같이 조선시대의 여러 척도 중 世宗대 척도로 환산한 수치를 만들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 조선시대의 여러 척도와 제주읍성의 둘레 환산 수치

척도 종류	㎝단위	기록	환산 수치	비 고
黃 鍾 尺	34.72	5,489尺	190,578.08㎝	약 1.90㎞
周 尺	20.81	5,489尺	114,226.09㎝	약 1.14㎞
營 造 尺	31.24	5,489尺	171,476.36㎝	약 1.71㎞
造禮器尺	28.64	5,489尺	157,204.96㎝	약 1.57㎞
橫 尺	26.40	5,489尺	144,909.60㎝	약 1.45㎞
布 帛 尺(遵守)	46.73	5,489尺	256,500.97㎝	약 2.56㎞
黃鐘律管	31.25	5,489尺	171,531.25㎝	약 1.71㎞

<표 5>의 환산 수치를 보면 포백척을 제외한 모든 척도의 환산수치는 제주읍성 둘레가 모두 2㎞ 미만으로 나오고 있고 포백척을 적용했을 경우만이 2.56㎞인 것으로 나온다. 제주읍성의 둘레가 5,489尺이라는 기록은 16세기부터 이미 있고, 그 이후 증개축이 이루어졌어도 일정하게 5,489尺으로 나온다. 이는 1914년에 작성된 지적원도를 가지고 성곽의 둘레를 계산하면 최소한 읍성의 둘레는 2.4㎞가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제주읍성 둘레를 표기할 때 사용한 척도는 포백척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제주읍성의 둘레는 포백척으로 5,489척이고 높이는 11척이었다. 이를 다시 환산하여 재론하자면 제주읍

성의 크기는 둘레가 2.56km이고, 높이는 5.14m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장까지 포함한다면 이보다 높은 6.07m정도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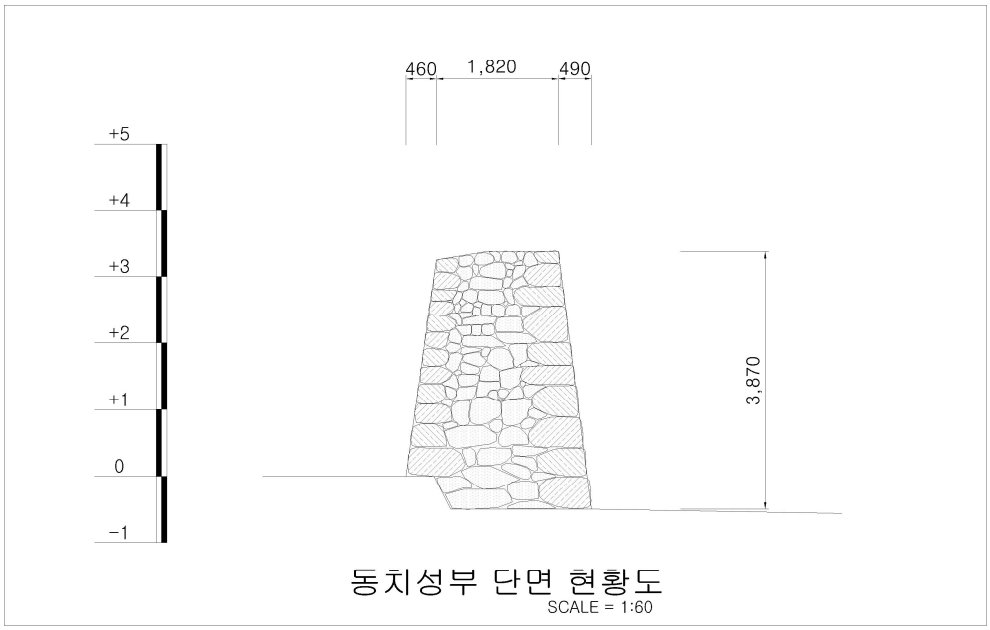
2. 축성방법 및 재료

1) 축성방법

성곽을 축성하는 방법은 성벽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즉 성벽의 내·외벽을 石築으로 축성하여 쌓아 올린 협축성과 외벽은 석축으로 하고 내부는 흙으로 채워 마감하는 편축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축성은 지형여건에 따라 夾築된 성벽이 내·외벽을 같은 높이로 축조해 올린 경우와 지형여건을 반영하여 외벽은 높게 축성하고 내벽은 낮게 축성되어 높이가 다르게 축성이 되는 경우가 있다.

제주읍성은 내·외벽을 석축으로 쌓은 후 성벽 내부에 잔돌을 채워놓은 협축성 형태로 축성되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잔존구간인 동치성 해체 시 성벽 내부를 조사한 결과 협축성 형태로 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진과 도면을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다.

<사진 2> 동치성 성벽 해체 모습[76]



<도면 2> 동치성 성벽 해체 단면도

<사진 2>는 동치성 성벽을 해체한 모습으로 성벽 측면 부분을 촬영한 것이다. 사진에 나타나듯이 성벽의 내·외 벽면은 석축을 이용하여 일정한 높이로 쌓아 올린 후 내부에는 잔돌과 토사를 이용하여 속 채움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협축성의 전형적인 축성방식이다.

<도면 2>는 <사진 2>를 도면으로 작성하여 성벽 규모와 내·외 벽면의 석축 길이를 평균적으로 표기하였는데 내부에 토사가 같이 있는 관계로 정확한 현황도 작성은 불가능하였으나 최대한 반영하여 협축성 형태로 작성하였다.

다만 협축성은 외벽은 견고하게 축성되었으나 내부에는 잔돌과 흙으로 속 채움을 하여 비교적 허술한 편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배부름현상이 나타나고 강수량이 많을 경우 빗물이 성곽 내부로 스며들어 붕괴 위험이 큰 단점이 있다.

이러한 협축성의 성벽은 산지에 마련된 산성보다는 지형적으로 평지에 마련된 평지성이나 평산성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리고 제주읍성의 형태는 동·서로 길게 타원형으로 축성된 부정형 형태를 띠고 있다. 부정형 형태는 산지의 자연 지세에 따라 그 형상이 일정하지 않아 주로 평

76) 제주시에서 2013년도 동치성 해체 복원 공사를 하는 과정에 필자가 직접 조사하여 촬영 및 작성한 사진과 도면으로 제주읍성 성벽은 협축성의 형식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성 형태의 성곽에서 자주 보이는데 제주읍성 역시 평산성 형태의 성곽으로 평지에서는 기존 지형을 따라 성곽을 축성하다가 경사지에서는 곡선형식으로 축성하였다.

읍성의 축성방법으로는 허튼층쌓기[77]로 축성하였는데 이는 성곽 축성 재료인 성돌을 제주지역의 현무암을 주로 사용하여 성돌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 다양한 형태의 성돌을 수평으로 쌓는 방식인 허튼층쌓기 방식으로 축성한 것으로 보인다.

허튼층쌓기의 특징은 높이와 크기가 각기 다른 면석을 사용함으로써 막힌 줄눈이 되게 쌓은 것이 특징[78]인데, 면석은 잘 가공된 석재에서부터 깬 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면석을 사용하는 것이 타 지방의 허튼층쌓기 방식이라면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가공된 석재와 깬 돌을 사용하기 보다는 최대한 자연석을 이용하여 허튼층쌓기로 축성하였다.

제작기법을 보면 하단부에 큰 大石을 놓고 상부로 갈수록 크기가 작은 성돌을 놓아 안정감을 주는 방식으로 축성하였다. 오현단 인근 동치성 해체복원 공사 시 드러난 단면을 확인한 결과 성 내·외부는 성돌 표면이 일정하게 고른 면석을 사용하였고 성곽 내부에는 잔돌을 이용하여 채워놓으며 일정한 단을 형성하였으며, 일정부분 토사를 사용한 흔적도 보였다. 또한 성벽 주위에 분포된 大石을 이용하여 성곽 기초를 다진 곳도 일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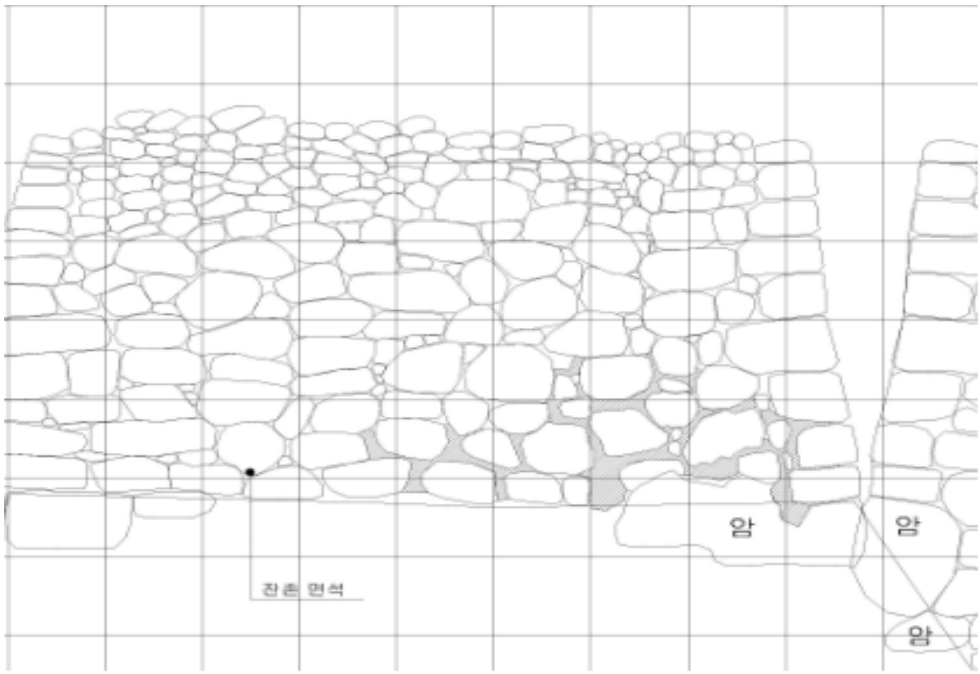
성곽 하단부에서 상단부까지 외벽 기울기는 1.0~1.4:1로 직선형 성벽으로 단경사를 이루고 있다.[79] 성곽 기울기는 성벽의 안정성과 방어능력에 따라 달라지는데 경사비율이 크면 급경사가 되어 방어력은 있으나 붕괴의 우려가 커지는데 안정성보다는 방어능력에 중점을 두어 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곽 축성 시 지형여건에 따라 기초 시공 방식도 달라지게 되는데 제주읍성의 경우 평지에서 경사지로 이어지는 지형 여건임을 감안 석축을 기초로 하다가 경우에 따라 암반 기초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동치성이 위치한 곳은 하

77) 손영식은 허튼쌓기는 성돌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길이가 긴 방향을 횡으로 설치하지 않고 상하 경사지게도 사용하게 되어 축성방식이 일정한 형식화가 없는 것이 축성방식이라 하겠다라고 하였는데 제주도의 성곽 축조 방식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성곽이 축조되었다는 것을 제주읍성 잔존 성곽에서 확인할 수 있다.
78) 손영식, 앞의 책, 2011, 323쪽.
79) 강두용, 앞의 논문, 2008, 11쪽.

천이 존재하여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기존 암반 위에 大石을 놓아 성벽을 쌓아 올린 방식을 사용했음을 현장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의 도면을 보면 축성에 편리하도록 암반을 부분적으로 잘라내어 평평하게 다진 후 성돌을 놓았다.

다른 지역 읍성 및 산성에서 큰 돌이나 암반으로 되어있는 구간의 성벽기초를 암반을 파내거나 깨트리지 않고 활용한 예가 있는데 제주읍성도 일부 구간에서 암반기초가 나타나고 있어 다른 지역의 읍성과 마찬가지로 지형을 적절히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도면 3> 동치성 기초부 도면[80]

2) 재료

성곽은 축성하는 재료에 따라 책성, 토성, 석성 등으로 구분된다. 성곽 축성 시 재료는 성곽을 축성하는 위치에서 채집이 용이하고 축성에 편리한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현재는 일반적으로 성곽이라고 하면 주로 석성을 얘기할 정도로 잔존하는 현재의 성곽은 석축성이 대부분이다. 석성은 채석장에서 운반과 가공이 어려워 축성하기 어려우나 한 번 축성하게 되면 성곽을 급경사로 쌓을

80)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3호 제주성지 정비공사 수리보고서』, 2014.

수 있으며 유지관리가 편리하여 석성을 많이 축성하였다.[81]

축성에 사용되는 성돌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축성하기에 편리한 크기와 가공, 그리고 채취장소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축성 시 구하기 쉬운 돌을 사용하였다.

제주도의 경우 축성재료로는 화산활동의 영향으로 형성된 현무암을 주로 이용하였다. 이는 제주에서 현무암 채집이 용이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무암은 어두운 색상과 다공질 조직 때문에 석재로서 용도에 제약이 많이 따르는 암석이지만 성곽 재료 외 축대 및 주춧돌 등 다른 용도로도 많이 사용이 되었다. 성돌은 채집한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적당한 크기로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집되는 성돌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다양한 크기로 채집되기 때문이다.

제주읍성의 경우에도 外面의 석축인 하부 礎石에는 大石을 놓아 기초를 다지고 상부로 올라가면서 작은 石材를 이용하여 축성하였는데 하부와 상부에 사용되는 성돌의 규격차이가 있어 성곽에 틈이 생긴다. 이 경우 틈에 맞춰 끼울 수 있는 작은 돌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맞는 돌을 채집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로 가공한 쐐기돌을 사용하여 성벽을 튼튼하게 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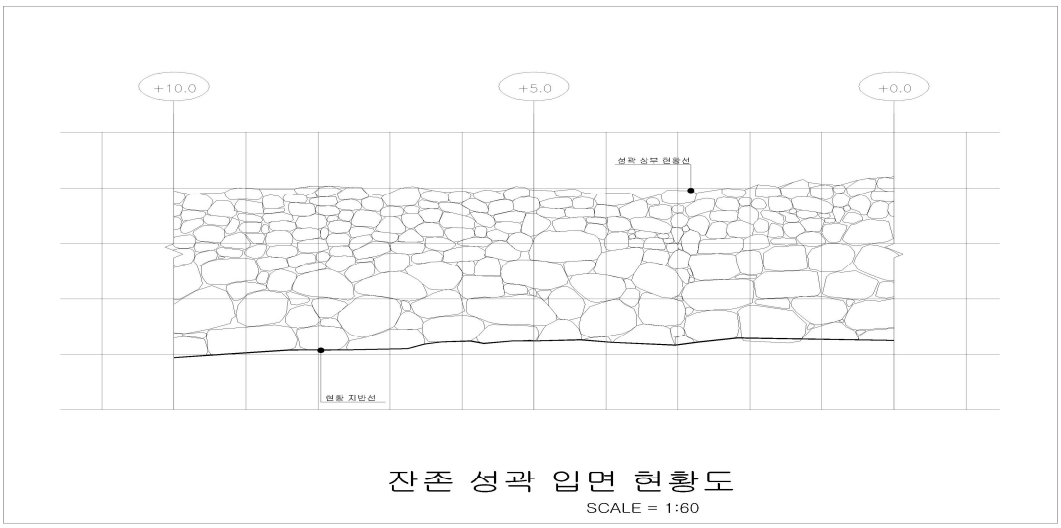
오현단 동쪽에 위치한 동치성은 기초부 위로 장방형의 성돌과 원형의 성돌이 혼합되어 축성되어 있었는데 성곽을 지탱하는 하부의 기초석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대체로 大石을 사용하여 축성하였다. 그리고 상부로 갈수록 크기가 작은 성돌을 사용하여 성곽을 축성하였는데 이러한 축성방법 및 성돌의 쓰임새를 재론하자면 무엇보다도 성벽의 안정성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상청이 위치한 건입동 일원 잔존성곽에서도 동치성과 동일하게 성곽 하부는 大石을 이용하여 성곽의 기초부를 지탱하고 있으며 상부로 갈수록 크기가 작은 성돌을 사용하여 축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조사결과는 현재 잔존하는 읍성 대부분이 동일한 형식으로 축성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성돌의 크기 및 축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잔존하는 성곽을 촬영한 다음의 사진과 이를 도면으로 작성한 <도면 4>를 참고하면 축성 시 사용된 성돌의 크기와 축성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다.

81) 손영식, 앞의 책, 2011, 53쪽.

<사진 3> 제주읍성 잔존성곽(일도1동 1094-61번지 인근)

<사진 3>은 개인 주택 경계담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제주읍성 잔존성곽으로 성곽을 지탱하는 하부에는 大石으로 기초석을 쌓은 후 허튼층쌓기 방식으로 축성하였다. 그리고 성곽 상부로 갈수록 성돌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도면으로 작성하여 확인해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도면 4> 잔존 성곽 입면 현황도

또한 현재 잔존하고 있는 성곽 기초석의 大石 크기를 실측한 결과 대부분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규모의 크기를 보이고 있는데 실측한 결과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제주읍성 잔존구간 하부 대석 크기

구분	가로(㎝)	세로(㎝)	깊이(㎝)	비고
동치성	64.8	52.4	62.8	
기상청 인근	59.4	47.2	측정불가	
삼도2동	49.2	33.6	측정불가	
일도1동	57.3	46.2	측정불가	

<표 6>에 보면 세 구간에 깊이는 측정하지 못하였는데 기초석의 크기는 대체적으로 육안으로 볼 때 크기가 다른 성돌에 비하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갈수록 성돌의 크기는 조금씩 작은 돌을 쌓아 균형적으로 상당히 안정감이 있게 보인다.

결과적으로 大 , 中, 小石[82]을 적절하게 섞어 사용하여 경사지에서도 안정감과 조화미를 보여주도록 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돌의 채집은 별도의 채석장을 지정하고 채집하는 경우가 있으나 채석장 위치가 축성지역에 운반이 어려운 먼 거리에 위치할 경우 성곽 주변의 암석을 채집하여 성곽을 축성하였다.

제주읍성이 위치한 주변에는 대부분이 농토로 이루어져 있어 축성에 사용하기 편리한 성돌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또한 하천을 끼고 있어 주변에서 쉽게 성돌을 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거리에 별도의 채석장을 지정하기보다는 인근에서 채집하여 축성재료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인근에서 채집할 수 있는 성돌을 운반과 공력이 많이 걸리는 원거리에 별도의 채석장을 지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진이 참고가 된다.

82) 손영식은 앞의 책에서 성곽 축성 시 사용된 석재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면석의 크기를 기준으로 大城石은 뒷 길이가 3尺 5寸, 면 크기 2尺이고, 中城石은 뒷 길이가 3尺에 면 크기가 1尺 8寸, 소성석은 뒷 길이가 2尺 8寸에 면 크기가 1尺 5寸을 말한다. 다만 제주읍성의 경우 고창읍성 등 다른 지방의 축성 재료처럼 장대석 등을 주초석으로 사용하지 않아 위 기준을 적용하여 석재의 크기를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진 4> 제주읍성 동치성과 남수구[83]

위 사진은 제주읍성 동치성 주변을 촬영한 것으로 남수구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촬영시기는 1900년 이전인 19세기 말에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을 분석해보면 동치성 기초가 암반지대 상부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주변에 성곽 축성에 필요한 석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 그리고 간성으로 보이는 성곽이 하천길을 따라 바다쪽으로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멀리 관덕정도 보인다. 또한 읍성 주변으로 하천 및 농경지가 대부분이어서 주변에서 성곽 재료인 성돌을 구하는 것이 용이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성돌에 대한 암질을 분석하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현무암의 성분으로 성돌이 운반된 위치에 대한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일반적인 지질학적 접근 방법인 박편, 암석채취 등은 불가능함에 따라 차선책으로 비파괴 X-선 형광분석기[84]를 이용하여 성돌에 대한 암질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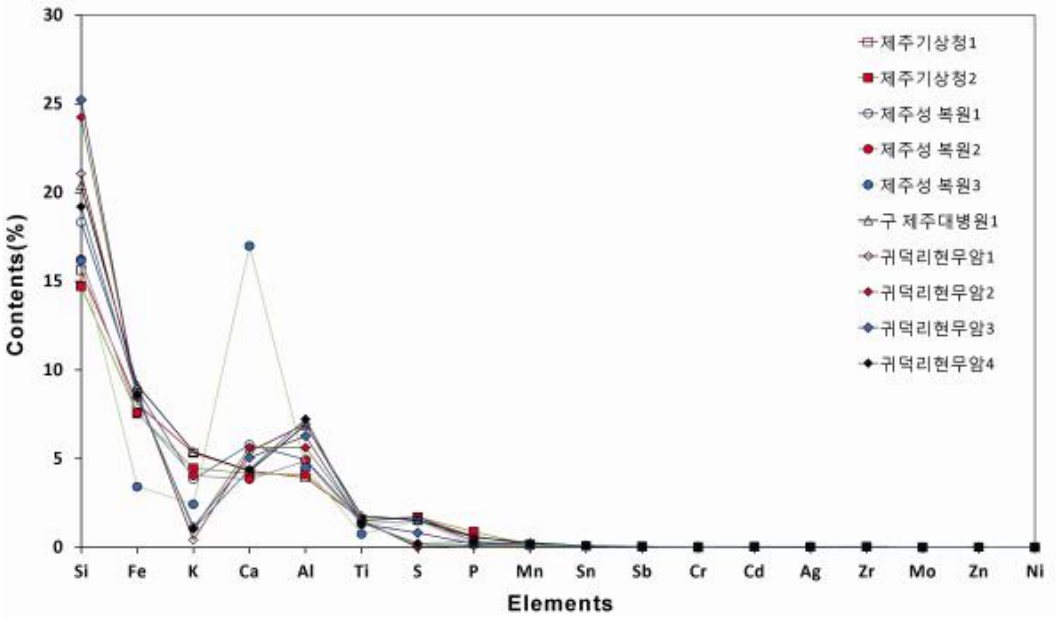
---

83) 『제주100년』, 제주특별자치도, 1996.

84) X선 형광분석법은 각종 원소 분석법 중에서도 대표적인 방법의 하나로 여러 가지 재료의 평가분석에 통상적인 분석방법으로 확립되었다. 이는 비파괴적이며 신속한 측정이 가능한 장점 때문에 고고학 및 미술자료 등의 귀중한 자료의 분석이나 전용장치로 야외에서 분석을 수행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분석할 石材의 크기에 따라 2~3개 지점을 임의로 선정하여 27개 원소(SI, Fe, K, Ca, Al 등)를 분석하여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현재 잔존성곽의 하단 大石과 상부의 小石을 샘플로 측정하였는데 구성성분과 풍화정도, 그리고 암석 내에 존재하는 기공에 따라 육안으로 관찰되는 색과 특성을 주요 분석 요건으로 삼고 성돌 한 개의 시료에서 2~3개 지점을 임의로 선정하여 27개 원소를 분석하여 평균값을 이용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다.

<표 7> 잔존 성곽 성돌 분석표



위 그래프를 보면 오현단 인근 동치성, 기상청 잔존성곽, 구제주대학교병원 인근 석렬 등에 대한 분석결과 현무암의 Si 함량은 14.71~20.39%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제주도내의 지역에 골고루 분포된 현무암에 포함된 Si 함량(19.20~25.22%)보다 약간 낮게 나타나지만 K와 P의 성분 값은 약 2~5%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Fe, Ca, Al, Ti, Mn, Sn, Sb 성분의 경우 좁은 성분값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잔존구간에 축성된 성돌과 도내 골고루 분포된 현무암의 암질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말해준다.[85]

제주읍성 축성에는 규모로 볼 때 많은 석재가 필요하므로 여러 지역 혹은 여러 종류의 현무암을 이용하여 축성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앞으로 다양

85) 이상의 암질분석 결과 및 표 작성은 필자가 직접 현재 잔존하고 있는 제주읍성의 성곽의 성돌을 비파괴 X-선 형광분석기를 이용하여 현장조사를 하고 분석하여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한 현무암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정확한 산지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부대시설

1) 城門

성문은 각종 물자나 인마 등이 성 내외를 통할 수 있는 통로로 유사시에는 적의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항하고 평상시에는 성 내외를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는 성곽의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다. 성문의 구조와 형식은 축성재료와 축성시기, 축성의도 등에 따라 다양한 구조와 형식이 나타나며 성곽둘레에 따라 적절한 간격에 성문을 마련하였다. 성문의 숫자나 위치는 성곽의 입지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성문이 많으면 공력이나 물자가 많이 소요되고 방어상에도 취약점을 지니게 되어 다소의 불편이 있더라도 최소한으로 하거나 동서남북 각 방면에 한 개소만 배치하려 하였다. 성문 주변에는 성문이 갖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성문보호시설을 마련하였는데 성문 외부를 감싼 옹성을 비롯하여 성문 좌우측에 돌출시켜 마련된 적대 등이 있다.

또한 성문의 출입통로 상부에 문루를 설치하여 방어를 위하여 멀리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행정체계의 유지와 출입을 통제하거나 감시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제주읍성의 門은 동·서·남의 3문과, 남·북수구의 2수구, 소민문·중인문의 간성 2문을 축으로 구성되었다. 읍성 북쪽으로는 해안가와 인접하여 있어 외적의 침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축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제주읍성의 규모와 구조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제주읍성에 시설된 城門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제주읍성 3문과 남·북 수구, 그리고 城門 앞에 있었던 돌하르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소민문·중인문의 간성 2문은 뒤에 나오는 간성에 대한 부분에서 같이 서술하겠다.

(1) 제주읍성 3門

제주읍성의 성문은 『耽羅志』에 동·서·남문이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3문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3문이 언제 처음 설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는 기록은 없어 축성 당시 3문 형식으로 축성이 되었는지는 미지수다. 성문에 대한 기록으로는 『東國輿地志』에 "3문을 세우니 동문은 제중, 남문은 정원, 서문은 백호이다"[86]라 하였는데 이는 성문을 처음 설치하였다기 보다는 격식을 갖춘 문루를 설치한 것으로 이해된다.

門樓는 『新增東國輿地勝覽』에 '定遠樓는 남문의 譙樓'[87]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 당시는 남문에만 문루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3문 중 처음 문루가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정원루에 대해서는 『耽羅志』의 다음 기록이 참고된다.

> 제주성 남문의 누대이다. 정덕 임신년에 목사 김석철이 창건했다....(중략)....남문에 옛날부터 누각이 있었는데 좁고 누추한데다 기울어졌으므로, 공이 父老를 불러 가르쳐 말하기를, "성상께서 나에게 이 고을에 와서 부임하도록 명한 것은 너희 고을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자 함이었다. 비록 그렇다고는 하지만 능히 외적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다음에야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능비 방비를 갖춘 다음에야 외적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주성에 南樓가 있는 것은 외적의 침략을 방어하는 것에 대비한 것인데도 게을리 하여 수리하지 않고 그것이 허물어지는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였다. 모두가 말하기를, "옳지 않습니다." 하였다. 公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그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어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재목을 모르고 기와를 구우며 일에 진력하고 역군을 통솔하여 그 규모를 늘려 높고 넓게 하여 난간을 두르니 공사를 모두 마치게 되어 扁額하기를 '定遠'이라 하였다.[88]

위 기록은 정덕 임신년(1512)에 목사 김석철이 제주읍성 남문 문루인 정원루를 창건했다는 『耽羅志』의 기록이다.

---

86) 立三門, 東曰濟衆, 南曰定遠, 西曰白虎(『東國輿地志』 城郭條).

87) 定遠樓, 卽, 南門譙樓(『新增東國輿地勝覽』 卷 38).

88) 卽南門樓 正德壬申 牧使金錫哲建....(中略)....南門舊有樓 隘陋傾側 公召父老 諭之曰 惟聖上 命我來莅是州 欲以安爾州之民也 雖然 能禦侮然後 可以能安民 能有備然後 可以能禦侮 州有南樓 所以備禦外侮也 而慢不修 任其頹圮 可乎 咸曰 不可 公曰 然則其新之 顧非吾事歟 於是 鳩材陶瓦 程功董役 增其制度 而崇廣之 周以欄檻 工已旣訖 扁曰定遠(李元鎭,『耽羅志』 樓亭條).

기록에 보면 제주읍성 남문에 문루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나 시설 규모가 작고 기울어져 있어 외적의 침입에 대응하는 것이 마땅치 않아 사람들에게 다시 문루를 세울 것을 설득하고 공사를 모두 마친 후 定遠樓라 편액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정원루는『耽羅志』이후 편찬되는 제주 관련 지지서에 김석철 목사가 창건한 것으로 표기하는 오류가 있다. 그러나 위 기록을 보면 남문 문루를 정원루로 부르게 된 것이 1512년이고 그 이전에 있었던 문루를 수리하여 정원루로 편액 하였다는 것은 이미 남문에는 문루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 준다.

남문은 제주목사 김석철, 송정규, 김영수에 의해 改築되거나 重修되었고 3문 중 가장 늦은 1918년 일제에 의해 훼철되었다.

동문은 제주읍성 東城의 門으로 동문의 門樓는 이원진의『耽羅志』와『東國輿地志』에는 濟衆樓로 소개하고 있으나 이후『耽羅志草本』및『增補耽羅誌』에는 延祥樓로 소개되고 있어 동문 문루의 편액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동문 문루에 대해서『增補耽羅誌』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舊名은 濟衆樓니 卽州東城門이라. 3999年 丙午 顯宗 7年에 牧使 洪宇亮이 重修하고, 4141年 戊辰 純祖 8年에 牧使 韓鼎運이 重修하고, 4189年 丙辰 哲宗 7年에 牧使 蔡東健이 重修하다. 今廢[89]

위 기록을 보면 제주읍성의 동문은 제주목사 홍우량, 한정운, 채동건에 의해 3차례에 걸쳐 重修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1914년 일제에 의해 훼철되었다.

그리고 제주읍성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종 20년(1565) 곽흘 목사에 의해 퇴축하여 축성되었다. 그렇다면 그 이전까지는 산지천 서안에 동문이 위치하고 있다가 1565년 이후 위치를 옮겨 새로 창건되었으리라 판단된다.

서문은 제주읍성 西城의 門으로 서문의 문루는 처음에는 白虎樓로 편액하였으나 이후 鎭西樓라 편액하였다. 이에 대하여『增補耽羅誌』의 기록을 보면,

> 舊名은 白虎樓니 卽州西城門이라. 4072年 己未 英宗 15年에 牧使 趙東漸이 重修하고 4106年 癸巳 英宗 49年에 牧使 朴聖俠이 重修하여 鎭西라 改扁하다. 金幣

라 기록하여 서문의 門樓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서문 역시 목사 조동점, 박성

89)『增補耽羅誌』名所古跡, 延祥樓.

협에 의해 2차례의 重修를 하였으며 1914년 일제에 의해 훼철되었다.

읍성의 문루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탐라순력도 그림 중 '제주조점', '건포배은', '비양방록'의 그림을 보면 남·서 문루는 맞배지붕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옹성을 둘렀음을 알 수 있다. 동문루는 팔작지붕의 형태를 보이고 옹성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3문 문루 모두 단층문루로 확인된다.

한편 문루의 규모에 대하여『南宦博物』에는 "濟衆樓 六間 卽 東城門 定遠樓 六間 卽 南城門 白虎樓 六間 卽 西城門 拱辰樓 卽 虹門 北水口 南水口 虹門 俯瞰絶壁 奇古可翫"이라 하여 규모는 6칸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성문 규모 및 축조 방법에 대해서는 문헌 기록이 나타나지 않아 고지도 및 사진자료 분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남문과 서문의 성문 형식은 개거형 성문형식으로 보인다. 개거형 형식의 성문은 문루가 마련되기는 하나, 성문의 통로구간이 성벽의 단절로 인하여 성벽 상부의 여장이 성문의 통로에서 연결성이 유지되지 않고 트이는 防備의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런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성문에 옹성이나 적대시설 등을 마련하여 취약한 점을 보완하였는데 고창읍성 및 낙안읍성의 사례에서 개거형 성문형식을 살펴볼 수 있다.

제주읍성의 성문 역시 단층의 문루를 성문에 마련하여 방어를 위하여 먼 곳을 조망할 수 있게 하였으며 성벽의 높이에 맞춰 성문 옆으로 적대 시설 등을 마련하여 적이 성문과 성벽에 바짝 붙어 공격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주읍성 성문의 모습은 <그림 1>과, <사진 5>를 참고하면 된다. <그림 1>은 제주목사를 지낸 이형상이 1702년 제주도 순력을 마치고 순력을 기리기 위하여 화공 김남길을 시켜 그린『탐라순력도』중「濟州操點」이다. 이 그림은 1702년(숙종 28) 11월 15일 제주읍성에서 성정군의 조련과 제반사항을 점검하는 그림으로 제주읍성의 모습을 가장 세밀하게 살펴 볼 수 있는 그림첩이다. 제주읍성 3문의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관덕정, 관아 건물의 위치, 향교, 서과원, 중과원, 남과원, 북과원 등 성 안 부속 시설물과 성첩도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 또한 제주읍성 밖의 모흥혈, 연무정, 사직단 등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여장, 성벽에 깃발, 옹성의 모습도 세밀하게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읍성 뒤로 한라산 산세가 험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어승악, 등 제주의 주요 오름까지 표기하였다.

<그림 1> 탐라순력도「濟州操點」[90]

<사진 5> 제주읍성 남문[91]

<사진 5>는 여장과 옹성이 이미 헐린 것으로 보아 1914년 이후 촬영된 사진으로 추정이 된다. 이는 1914년 작성된 지적원도에는 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상에서 보이는 문루의 규모는 정면과 후면을 합쳐 총 6칸으로 시설되어 있는 모습이 보인다. 또한 성문 좌·우로 적대가 설치되어 있어 유사 시 성문을 닫아 방어에 용이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2) 남·북 수구

수구 2문의 축조는 1565년 곽흘 목사가 동성을 퇴축하여 산지천이 성 안으로 들어오면서 산지천 위로 읍성을 연결하기 위하여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 수구의 축조시기에 대해서는 기록에는 1599년 성윤문 목사 당시 창건한 것으로 나오는데 모두 무지개다리인 虹門으로 지어졌다고 전하고 있다.

남·북수구의 축조시기 및 훼철 과정에 대해 『增補耽羅誌』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남수구는 선조 32년(1599) 제주목사 성윤문이 창건하였고, 효종 3년(1652) 8월에

90)『耽羅巡歷圖』,「濟州操點」, 제주시청 소장.
91)『제주100년』, 제주특별자치도, 1996.

큰 비바람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졌다. 이후 제주목사 이원진이 重建하고, 숙종 46년(1720)에 제주목사 민제장이 개축하였다. 고종 23년(1886) 7월에 큰 비로 또 무너졌고, 다음해 고종 24년(1887) 제주목사 심원택이 改建하였다. 지금은 없다.
북수구는 남수구와 동일한 시기에 제주목사 성윤문이 창건하였고, 효종 3년(1652) 8월에 역시 큰 비바람으로 인해 무너졌다. 이후 제주목사 이원진이 重建하고, 현종 6년(1665)에 제주목사 홍우량이 重修하고, 헌종 12년(1846)에 제주목사 이의식이 퇴축하였다. 지금은 없다.[92]

위 기록에 따르면 남·북 수구는 홍수가 있을 때마다 자주 무너져 여러 차례 보수가 이루어졌는데 1927년 큰 비로 무너져 내린 후 더 이상 복원을 하지 않아 사라졌다고 나와 있다. 이처럼 자주 무너져 내리는 남·북 수구 축조의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東城 퇴축으로 인해 하천이 성 안으로 들어와 성곽이 단절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축조되었을 것이다. 성곽이 단절되면 우선 방어에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고 이동에 많은 불편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제주목사들은 여러 차례 보수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곽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남·북수구를 보수하며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구 2문의 문루에 대해서는『南宦博物』에서 북수구에는 공진루를 세웠지만 남수구에는 홍문만 있을 뿐 문루를 세우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는 지리적 위치상 남쪽 모퉁이 가장 높은 곳에 제이각을 축조했기 때문에 굳이 다시 남수구 위에 문루를 축조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93] 그리고 <사진 4>를 통하여 남수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남수구는 2개의 虹門 형태로 축조하였고 북수구는 1개의 虹門 형태로 축조하였다.

다만 성곽에서의 水口는 성벽에 마련된 배수시설 중 규모가 작은 것을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제주읍성의 남·북수구는 일반적으로 水門의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성곽 여건상 하천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 성곽의 연결성이 유지되게 하였고 하천 폭에 필요한 홍예를 축조하여 상부에 성벽의 연결성을 유지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료의 기록에는 水口라 표기되었지만 水門으로 표기하는 것이 올바른 표기라 판단된다.

92) 談水契,『增補耽羅誌』城郭條.
93)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앞의 책, 2013, 108쪽.

(3) 돌하르방

제주읍성의 3문 앞에는 주민들의 평안을 기원하는 수호신적 의미인 돌하르방이 위치해 있다. 도읍지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경계 표시의 기능도 있는데 '우석목', '무석목' 등으로 불리는 돌하르방은 장승의 일종으로 1970년대부터 제주어로 '돌하르방'이라 불리기 시작하였다. 제작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김석익의 『耽羅紀年』과 담수계에서 펴낸 『增補耽羅誌』에 의하면 돌하르방을 '옹중석'[94]이라 하여 1754년(영조 30) 당시 제주목사 김몽규가 세웠다고 기록은 되어 있다.[95] 다만 지금까지도 돌하르방의 제작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돌하르방은 복원 정비된 정의현성 돌하르방을 제외하고는 성문이 훼철되면서 원래의 자리에서 모두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되어 있다. 돌하르방의 개수는 제주목 24기, 대정현과 정의현에 각각 12기씩 총 48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읍성의 돌하르방은 성문이 훼철되면서 제주시내 곳곳에 흩어져 있으며 2기는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옮겨져 있다. 돌하르방에 대해서는 제작시기를 밝히는 문제와 기원에 대한 문제 등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체계적인 연구 실적이 많이 없어 새롭고 다양한 연구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성문 앞에 돌하르방이 세워져 있는 모습은 <사진 6>에서 볼 수 있다. 사진은 제주읍성 동문 밖 어귀의 사진으로 알려졌으며 성벽과 여장시설이 허물어지고 근대 지붕과 양철지붕 등으로 건축된 민가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1955년대 이후 촬영된 사진으로 보인다. 사진 가장 우측의 돌하르방 옆으로 성담의 모습도 보이며 돌하르방의 높이와 성담의 높이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돌하르방은 1920년대 성벽이 훼철되고 근대화 되는 시기에 도로의 확장 등으로 원래 위치에서 옮겨지기 시작하여 현재는 제주시내 곳곳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남겨진 사진자료 및 사료 기록들을 토대로 돌하르방이 원래 위치했었던 곳으로 옮기는 것이 제주사에 남아있는 돌하르방에 대한 의미를 복원시키는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

94) '옹중'은 진시황때 장수인 阮翁仲을 가리키며 그의 용맹스러움을 기려 성문 앞이나 궁궐 앞에 세워지게 되는데 이후 이러한 석상들을 모두 옹중석이라 부르게 된다.(김정선, 「翁仲石 : 돌하르방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42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199쪽).

95) 참고로, 張寅植, 1848.3~1850.6, 『耽羅誌』(東京大 所藏本) 「濟州牧-先生錄」에 의하면, 김몽규는 영조 28년(1752) 11월에 도임하였다. 偶形石을 성문 밖에 새로 세웠다(新設偶形石於城門外)라는 기록도 있다.

<사진 6> 제주읍성 동문어귀[96]

2) 甕城

옹성은 성 내외를 통하는 성문의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로 성 외부로 둘러쳐진 이중으로 마련한 성벽이며 모양은 반으로 쪼갠 독과 같다. 이는 문자 그대로 적군이 옹성 내에 들어오면 사방에서 공격을 받기 때문에 마치 독 안에 든 쥐 같이 된다 하여 옹성이라 불리어졌고 또한 그 형태와 기능을 감안하여 甕門, 小城, 月城, 翼城 등 다양하게 불렀다.[97]

이러한 옹성의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음 기록이 참고 된다.

> 옹성이란 성문을 방비하기 위한 것이니, 성을 지킴에 있어서 반드시 門을 방비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문 위에 있는 다락은 火攻을 당하기가 쉽기 때문에 비록 빗장이 있어도 부수고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기가 어려워서 돌로 쌓는 성만은 못하다는 것이 첫번째 이유입니다. 문은 대개가 평지에다 세우기 때문에 만일 지켜내지 못했을 때에는 적병이 곧바로 좋은 길로 통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험난한 곳에 자리한 성만은 못하다는 것이 두번째 이유입니다. 때문에 적병이 추격해 올 때는 언제나 성문을 먼저 공격하고 성을 뒤에 공격하므로,

96) 제주대학교박물관,『기록,만농이 바라본 섬 제주』, 제주대학교, 2012.
97) 손영식, 앞의 책, 2011, 639쪽.

兵法을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문을 방비하는 데 힘을 쏟는 것입니다.

易經에 이르기를,

“重門에서 목탁을 친다.”

하였는데, 여기서 말한 중문은 이미 옹성을 의미한 것이고, 孫權이 潤州城을 鐵甕이라고 불렀던 것을 보면 漢·魏 시대에 일찍이 그러한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오직 興仁門만이 특별히 옹성이 있는데, 다만 여기에는 문이 없습니다. 대개 적병이 옹성 가운데로 들어오면 사면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므로 문이 없어도 되고 문이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옹성의 제도에는 본래 두 개의 문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茅元儀는,

“옹성은 지형에 따라 둥글거나 모나게 만들고, 높이와 두께는 城과 같게 하며, 다만 한 짝만 열되, 좌우 어느 편이든 편리한대로 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도읍으로 통하는 큰 성에나 가능한 것인 까닭에 그 券門에 대한 제도나, 堡約에 실려 있는 것은, 모두 문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 제도를 참고하여 옹성을 만들도록 하는데, 문마다 각각 옹성을 두되 거기에는 작은 문을 하나씩 둡니다. 戰棚·露屋·方眼·楕眼·花窓·角臺 등의 제도는, 옹성의 제도가 이미 작은 규모인 때문에 이에 그 제도는 채택하지 않았습니다....[98]

위 기록은 조선후기 문신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저술을 정리한 문집으로 옹성의 필요성과 개념 그리고 옹성의 제도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옹성을 시설하는 주 된 이유는 성문 앞에서 적군을 효율적으로 공격하기 위함이고 동시에 성문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주로 평지성이나 평산성에 마련된 성곽에 옹성이 많이 설치가 되었는데 이는 계곡이나 능선이 험해 적의 접근이 어려운 산성에 비해서 도성이나 읍성은 적의 접근이 쉬운 평지에 성문이 많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성문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설치하였다.[99]

---

98) 甕城 所以備門也 守城必備門 其故有二 門有樓 易被火攻 有闕 難禦椎碎 不若城之石築一也 門占地多在平衍 失守卽通坦路 不若城之據險二也 故敵之所趨 每先門後城 而知兵者 必於是致力焉 易曰重門擊柝 重門已甕城之意 而至孫權潤州城 號稱鐵甕 則漢魏之際 早有其制也 我國唯興仁之門特有甕城 而但此無門 蓋賊入甕中 四面受攻 有門亦可 無門亦可爾 然甕制本有二門 茅元儀曰甕城或圜或方 視地形爲之 高厚與城等 唯偏開一門 左右各隨其便 然此唯通都大城宜然 故其券門之制及堡約所載 竝止一門 今參考諸制 令作甕城 每門各置甕一面 面各一小門 如戰棚露屋方眼橢眼花窓角臺之制 甕制旣小 玆不採制....(『與猶堂全書』 제1집, 「詩文集說 甕城圖說」).

99) 손영식, 앞의 책, 2011, 639쪽. : 옹성의 중요성에 대해 『北學議』의 저자 박제가는 “중문에 옹성

옹성의 형태는 반원형으로 된 것이 가장 많이 보이는 일반적인 형태이다. 그 외에는 방형이나 타원형 그리고 ㄱ자형 및 ㄷ자형의 특수한 형태의 옹성도 일부 보인다.

대부분의 옹성은 협축 형식의 구조로 성문 좌우의 성벽에서 옹성 상부로 통행할 수 있는 구조로 축조되었다. 그리고 옹성의 상부에는 내외부로 나란히 여장 시설을 하여 적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축조하였다.

현재 축성된 읍성 중 옹성이 시설된 읍성을 일부 살펴보면 고창읍성의 경우에는 성문마다 모두 반원형의 옹성을 쌓았으며 상부에 여장 시설을 갖추어 놓았고, 낙안읍성의 경우 동문은 ㄱ자형으로 그리고 남문은 ㄷ자형의 특수한 형태의 옹성으로 축성되어 있고 상부에 여장 시설을 갖추어 놓았다.

반면에 제주읍성은 일제강점기에 문지를 포함한 성곽이 대부분 훼손되어 현재 옹성이 축성된 곳은 없다. 또한 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사료의 기록은 없다. 다만 앞서 살펴 본 탐라순력도 제주조점의 그림에서 성문에 옹성이 축성되어 있는 모습과 1914년 작성된 아래의 지적원도를 보면 당시 성문 주변의 지적 형태가 옹성이 축성되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도면 5> 1914년 작성 지적원도[100]

이 없으면 성이 없는 것과 같으니 옹성을 쌓을 수 밖에 없다. 이는 아름다움을 찾자는 것이 아니라 견고함에 있으며 적의 방어에 절대로 필요하다"라 하여 옹성의 중요성을 기술하였다.

100) 도면 5,6은 일제 강점기 1914년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지적원도로 읍성 주변

<도면 5>를 보면 읍성 3문 주변에 옹성이 축성되어 있으며 형태는 남문과 동문은 ㄱ자 모양을 보이는 특수한 형태인 옹성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옹성의 구조와 규모에 대하여 기록이나 사진 등이 남아 있지 않아 앞의 지적도에서 남문 주변을 확대하여 옹성의 형태를 확인해보았다.

<도면 6> 1914년 작성 지적원도 남문 확대 모습

<도면 5>는 제주읍성과 주변의 전체 현황 및 도로 등을 지적도로 작성한 것이고 <도면 6>은 남문 주변의 지적원도를 확대한 것으로 남문 주변의 지적 형태를 보면 성문 앞에 축성된 옹성의 형태 및 규모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다.[101]

또한 성곽이 지나가는 자리 위에 '城道'라 표기되어 있어 성벽을 따라 병력을 배치하거나 평상시 성곽 관리를 위하여 성벽을 따라 내외에 마련한 회곽로 및 성상로가 제주읍성에도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성벽으로 오르내리

지적 현황과 도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읍성이 지나간 위치까지 지적도상에 표기 되어 제주읍성의 현황 등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당시 조선총독부에서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신작로 건설을 추진하였는데 아마도 이런 이유로 지적원도를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적원도는 필자가 직접 발급 받아 현재의 위치를 함께 표기하여 작성하였다.

101) 다만 손영식은 전국 옹성현황에서 제주읍성 남문 옹성에 대해 평지형의 특수형식으로 옹성이 축성되었고 규모는 길이 58.4m, 폭 7.6m, 잔존높이 3.0m, 개구부의 방향은 좌측이며 개구부의 폭은 15.0m라 표기하였다. 다만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고 특히 남문 옹성의 규모를 수치로 제시하고 있는데 남문에 읍성이 위치하고 있지 않은 현 상태에서 제시한 수치에 대한 근거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다(손영식, 앞의 책, 2011. 654쪽).

기 위한 시설인 등성계단도 역시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앞서 건축공사에 따른 발굴조사 결과 제주읍성 내탁면의 기단 석렬이 출토되었는데 그 위치가 <도면 6>에서 보이는 남문과 인접한 一七六번지다. 따라서 고고학조사 결과와 1914년 지적원도가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雉

雉는 성벽에 돌출시켜 쌓은 구조물로 적의 접근을 조기에 관측하고 전투 시 성벽으로 접근하는 적을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공격하여 격퇴할 수 있도록 성벽의 일부를 돌출시켜 쌓은 방어시설로 雉城, 敵臺, 甕城, 曲城으로 불리기도 한다.

雉의 기능에 대하여 丁若鏞은『與猶堂集』에서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 비록 작은 城이더라도 만약 雉城이 없다면 城이 없는 것만 못하다. 우리나라의 城에는 모두 雉城은 없고 埤堄에 포구만 약간 파놓았으니 어디에 쓸 것인가. 적이 성 밑에 붙어 돌머리를 파낸다면 비록 돌을 깨서 던지고 물을 흘러 내도 모두 賊人의 등에 떨어지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丸箭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성문의 좌우에 곡성을 만들어 옹성을 대신하고, 그 문이 없는 측면에도 역시 曲雉를 설치하며, 그 두 雉城 사이 불과 오육십보 지점에 箭丸이 서로 미치게 한다면 성에 붙은 적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102]

위 기록을 보면 雉城은 성 밑에 접근하는 적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시설인데「若無雉城 不如無城」이라 언급함으로써 埤堄[女墻]만 있으면 城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 하여 雉城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일반적으로 성벽이 직선으로 조성된 경우 성내의 城上에서 성벽아래 바짝 붙은 적을 효과적으로 공격하기가 어려우므로 적을 측면에서 사각으로 공격하기 위한 시설이라 하겠다. 그리고 성문 좌우에도 곡성을 설치하여 옹성을 대신하도록 할 것을 주장하며 敵臺와 雉城의 기능이 같음을 말하고 있으며 또한 曲城이라는 용어도 치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

102) 然雖一弓之城 若無雉城 不如無城 我邦之城 都無雉城 惟於埤堄 略穿砲穴 將安用之 賊密附城根挖出石頭 雖擂石灌汁 皆不落賊人背上 矧丸 箭哉 門之左右 須作曲城以代瓮城 其無門之面 亦設曲城 其兩雉之間 要不過五六十步 令箭丸相及然後 附城之賊 乃可禦也(丁若鏞,『與猶堂集』卷181, 民堡議 堡垣之制).

우리나라의 성에서는 대체적으로 雉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대부분의 성곽에 雉를 설치하였는데, 雉의 규모에 관하여 세종 15년 정월에 병조에서 啓하기를

> "경상도 곤남에 새로 쌓은 성의 적대가 앞면은 너무 넓고, 좌우는 너무 좁아서 守禦하기에 적당치 못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만들어 놓아서 고칠 수가 없사오니, 지금부터는 앞면은 15척, 좌우는 각 20척으로 제도를 정하고, 또 1백 50보마다 적대 하나씩을 설치하면 공력이 적게 들고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103]

하여 雉의 규모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였다. 위 기록에 나온 수치를 포백척으로 환산하면 전면은 약 7m, 측면은 약 9.3m 내외로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雉城 설치 간격을 150步일 경우 1步를 6尺으로 환산하여 다시 포백척으로 환산하면 414m의 거리를 두어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雉城의 간격이 너무 넓어 성벽아래 바짝 붙은 적을 효과적으로 공격하기에는 적당치 않은 거리로 150步가 아닌 150尺이 맞는 것으로 추정된다.[104]

제주읍성의 雉에 대하여는 『耽羅志』 및 『東國輿地志』 등에 '擊臺 二十七'이라 하여 雉城이 설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雉城은 대부분의 성곽이 훼손되면서 거의 남아 있지 않지만 잔존구간인 오현단 동쪽에 동치성이 남아 있어 규모 및 축성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치성은 성곽 축성방법과 동일하게 내·외벽을 석축으로 축성하여 쌓아 올린 협축식이며 허튼층쌓기로 축성되었다. 제주시에서 동치성에 대한 해체복원 공사 당시 해체된 치성을 확인한 결과 치성 외부에는 면석이 고른 石材를 사용하였고 협축식으로 잔돌끼움을 하였고 내부에는 100㎜~300㎜ 크기의 잡석 및 토사를 이용하여 속채움을 하였다.

치성의 높이는 城壁 높이에 맞춰 雉城을 築城하였는데 경사지에 축성되어 치성 내·외벽의 높이는 약 4.7m ~ 5.8m로 높이의 편차는 지형적인 양상을 반영하고

---

103) 「兵曹啓 : "慶尙道昆南新城敵臺 前面過廣 左右過狹 不宜守禦 然此已造 不可改也 今後前面十五尺 左右各二十尺 以爲定制 且每一百五十步 置一敵臺 則功力省 而可以禦敵" 從之」(『世宗實錄』 卷 59, 15年 1月).

104) 『世宗實錄』 卷 59, 15년(1433) 1月 13日 원문에는 150步로 기록되어 있으나 제주역사문화진흥원의 『제주성지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에서는 치의 간격을 150척에 1개의 치를 설치토록 하였다고 하고 있다. 이는 아마 오기인 듯 보이는데 150步로 바로 잡는다.

있다.[105]

치성의 설치간격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치성의 간격이 너무 넓을 경우에는 성벽 아래 바짝 붙은 적을 공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대정읍성의 경우를 보면 5개의 치성을 성벽에 덧대어 설치하고 치성의 간격을 222m ~ 336m가량 간격을 두어 설치하였다.[106] 이는 치성 설치 개소가 적어 최대한 간격을 두고 축성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와 달리 제주읍성의 경우 27개소의 치성이 설치되어 간격을 최대한 축소하여 설치하였다.

앞서 살펴 본 〈도면 5〉에 보면 제주읍성의 雉城 설치 간격은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 것이 아닌 정방형과 방형의 혼합된 형태로 불규칙하게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107]

치성의 설치 개소에 대해서『耽羅志』및『東國輿地志』등의 기록에는 '擊臺 二十七'이라 하여 격대 즉 雉城의 개소를 27개소로 기록하고 있으나『南宦博物』[108]에는 雉城 개소를 28개소로 표기가 되어 있다. 이 1개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오기인 듯 보인다. 그리고 1914년 지적원도와 사료의 기록에 雉城 개수의 차이가 있으나 敵臺 및 甕城 등 성벽 방어시설을 전체 포함할 때에는 일치하여 기록에는 성벽 방어시설 전체의 개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雉城 상부에 누각이 있는 경우 鋪樓 또는 敵樓라 하였는데 누각을 설치한 주 목적은 雉城위에 있는 군사들을 가려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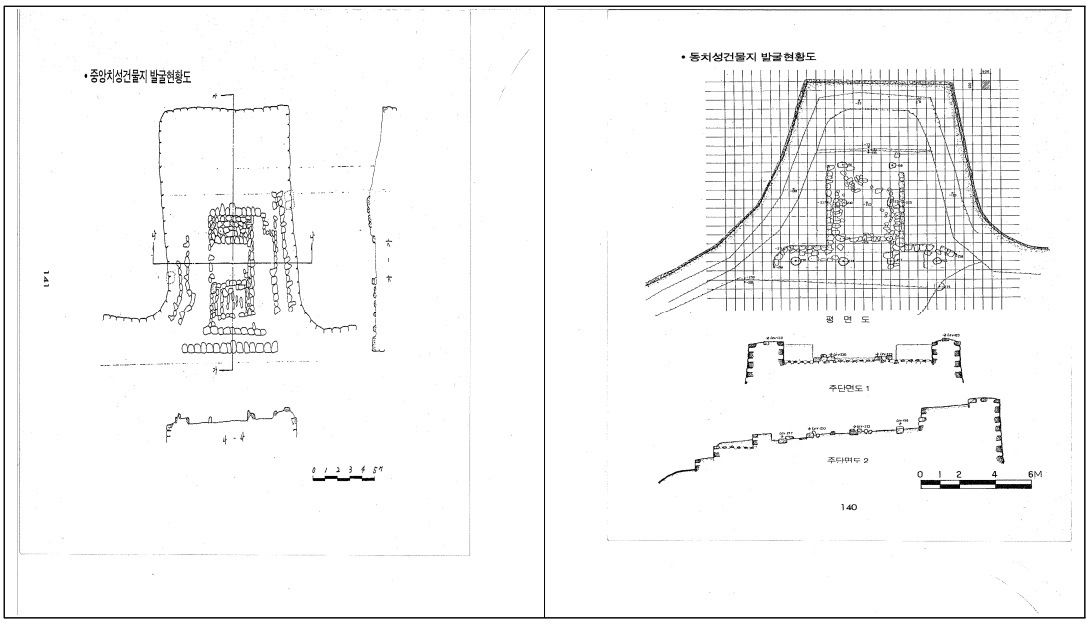
제주읍성 치성 상부에도 누각이 설치되어 있었음은 남아있는 동치성과 중앙치성에 대한 시·발굴조사 결과 입증이 되었다. 또한『탐라순력도』및 1724년부터 1754년 사이에 제작된『제주목도성지도』등에서 치성 상부에 누각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누각의 기능과 명칭에 대해서는 사료의 기록과 지도에 표기된 내용이 다른 관계로 논란이 있다. 즉『南槎錄』에서는 "제이각은 성 남쪽 모퉁이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며 성안의 형세는 이곳에서 모두 볼 수 있다."라[109] 기록되어 동치성

105)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앞의 책, 2013, 153쪽.
106) 서귀포시,『대정성 종합정비계획』, 2012.
107) 雉城의 설치 간격은 1914년 지적원도를 참고할 때 약 80m~110m의 간격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 이는『世宗實錄』의 기록을 참고하여 볼 때 150尺을 포백척으로 환산한 70m의 기준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108) 擊臺, 二十八所, 各, 一間(『南宦博物』).

상부 누각을 制夷閣으로 표현하여 기록하고 있으나 『제주목도성지도』의 그림에서는 制夷閣 위치에 설치된 누각을 청풍대로 표기하고 있어 제이각과 청풍대의 위치에 대한 이견이 있다.110)

명칭에 대한 혼돈은 있으나 분명한 것은 치성 상부에 누각이 설치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치성 상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의 도면이 참고가 된다.



<도면 7> 제주읍성 중앙치성 발굴 도면　　<도면 8> 제주읍성 동치성 발굴 도면111)

<도면 7>번과 <도면 8>번은 1990년 잔존되어 있는 읍성 남쪽 중앙치성과 동치성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를 도면으로 작성한 것으로 각 치성 상부에는 건물지

109) 制夷閣, 在城南偶最高處, 城中形勢, 盡輸於此(金尙憲, 『南槎錄』).

110) 제이각 기록과 관련하여 아래의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張寅植, 『耽羅誌』「濟州-先生錄」, 成允文 己亥三月到 是冬加築州城 城上設擊坮 作制夷閣城南始造南北水口虹霓門 新設待變廳.
尹著東, 『增補耽羅誌』「濟州-樓亭條」, 增制夷閣 成允文建 南槎錄 在城南偶最高處云 疑是南水口上高處 今廢.
즉 장인식의 탐라지 제주 선생록에서는 '기해년 3월에 부임하였는데 이 해 겨울에 제주읍성을 더 쌓고 성 위에 격대를 설치하였으며 성 남쪽에 제이각을 지었다. 처음으로 남북수구의 홍예문을 만들었고 대변청을 신설하였다'라 하여 제이각은 당시 제주 목사 성윤문에 의해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윤시동 증보탐라지 제주 누정조에도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추가로 제이각은 성윤문이 세웠는데 남사록에 의하면 제주 읍성 남쪽 모퉁이 가장 높은 곳에 있다. 읍성 안의 형세는 이곳에서 모두 볼 수 있다. 남수구 위에 있는 높은 곳이 아닐까 한다. 지금은 폐허가 되었다.'라 하여 제이각 위치를 특정 지었다.

111) 제주시, 『濟州城址 및 五賢壇 整備計劃(案)』, 1990, 140～141쪽.

가 발굴되었다.

발굴된 건물지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하였지만 제주에 온 서양인들이 남긴 견문록에는 “중간 중간 일정한 간격을 두어 망루와 포탑이 올려졌다”고 하여 치성 상부에 건물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다만 중앙 치성 상부에서 발굴된 건물지의 용도에 대해 알려주는 기록이 없어 砲를 쏠 수 있게 만든 시설물인 砲樓가 설치되었는지 아니면 치성에 있는 군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인 鋪樓가 설치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후 2013년도에 1990년도 시굴조사에서 건물지가 확인된 동치성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凸자형의 기단 석렬과 초석 6매가 확인되었는데[112] 건물지의 용도 및 명칭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다.

발굴조사 결과 출토된 건물지와 상부의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사진을 참고하면 건물지의 규모와 시설물 배치 등이 참고가 된다.

<사진 7> 제주읍성 동치성 상부 발굴 완료 모습[113]

위 사진에 나타나는 건물지의 형태는 장방형 건물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2

112) 제주고고학연구소, 『제주성지 정비 공사 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2013, 19쪽.
113) 제주고고학연구소, 앞의 책, 2013, 27쪽.

개의 건물지로 추정이 되었다. 발굴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면의 건물지는 정면 1칸, 측면 2칸, 후면의 건물지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규모로 확인된다. 또한 전면 건물지의 기둥 간격은 정면은 250㎝, 측면은 190㎝ 내외로 추정되며 기단 석렬의 전체 규모는 5.7×4.3m 이며 그 면적은 24㎡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후면의 건물지는 초석 간격은 정면 250㎝, 측면 190㎝ 내외이고 기단 석렬의 전체 규모는 10.6×4.2m이며 그 면적은 44㎡로 확인되었다.[114]

이 외에도 성벽의 여장 시설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여장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하기로 한다.

발굴조사 결과 기와편 및 자기류 등도 출토가 되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제주읍성 치성에 누각이 설치되었던 것은 확실하고 또한 기와류가 많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지붕에 기와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4) 女墻

여장은 일반적으로 체성위에 쌓아올린 낮은 담을 말하며 垛, 堞, 垛堞, 女堞, 성가퀴 등의 용어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성곽 위에서 몸을 숨기고 막아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살받이 터"라고도 표현하기도 한다. 이 여장에 대하여 『華城城役儀軌』에 의하면,

> 城의 女墻을 垛라고 하는데, 살받이라는 뜻의 垛는 피할 躲를 말한다. 옛날 制度로 垛의 높이는 6尺이고 넓이는 7尺인데, 이제 京外의 모든 女墻의 높이가 중간키 정도 되는 사람의 머리에도 미치지 못하고, 넓이는 數人이 列을 이룰 수가 없을 정도로 몸을 돌릴 경우에 화살을 받기가 쉽다. 그리하여 여러 制度를 참고하여, 마땅히 높이 5尺, 넓이 20尺으로 기준을 삼았다.[115]

라 하여 여장을 여첩 또는 타 라고도 하였으며, 살받이라는 뜻의 垛는 피한다는 뜻의 躲를 말한다고 하여 여장의 역할이 적의 화살로부터 몸을 피하기 위한 防禦施設이었음을 알 수 있다.

---

114) 이상의 발굴조사 결과는 강창화, 「제주읍성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제5차 한국지역학포럼,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4 참조하여 인용.

115) 城之女墻曰垛 垛者躲也 古制垛高六尺濶七尺 今京外女墻 高不掩中人頭面 濶不容數人成列 回旋之際易受矢鏃 叅攷制宜 以高五尺濶二十尺爲準(『華城城役儀軌』 卷首, 圖說).

여장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성벽위에 마련된 담장 형식의 부속시설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으나, 실제로는 적에게 심리적인 위협까지 줄 수 있는 중요한 방어시설이다. 여장의 축조재료는 체성과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획득하여 사용하기 편리한 재료를 이용하여 축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축조 시 하단에 眉石을 마련한 후 축조한 경우와 그냥 체성위에 여장만 축조한 경우가 있다.[116] 또한 제주도의 읍성에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다른 지역의 읍성에서는 특수한 예로 여장의 옥개에 일부 기와가 사용된 경우도 있다.

여장은 성벽에서 비록 체성은 마련하지 않더라도 여장은 반드시 마련하여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로 산성의 경우에는 1~2m 정도의 낮은 형식적인 체성을 마련하여 그 위에 여장 시설을 하거나 아예 여장만 축조한 구간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여장을 시설함으로서 성벽 높이를 더 높게 보이게 하고 성 내부의 상황도 적에게 노출되지 않아 심리적인 위협까지 주기 때문이다.

여장은 축성자의 축성 의도와 재료, 시기 등 축성당시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조성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평여장, 철여장, 요철여장, 원여장, 특수여장 등으로 구분이 되고 특수한 경우로 문루의 여장이 있다.

여장의 구조를 간략히 살펴보면 여장 시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일반적으로 체성의 재질과 같은 부재를 사용한다. 그러나 일부 성곽에서는 전돌이나 기와 등 체성의 재질과 전혀 다른 부재가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예는 조선후기 전돌이 실용화되는 과정에서 사용된 재료라 하겠다.[117]

그리고 성곽에서 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시설인 射穴을 마련하였는데 주로 여장의 垛에 원총안, 근총안, 타구 등의 시설을 마련하였다.

제주읍성의 여장시설에 대해서는 『輿地誌』 城郭條에 “격대가 27개소이고 타첩은 404개”[118]라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후의 『耽羅志』, 『濟州邑誌』, 『增補文獻備考』 등의 기록에도 제주읍성 여장시설에 대하여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 다만

116) 미석은 체성과 여장 사이 넓적한 돌로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설치된 돌이 마치 눈썹처럼 보여 眉石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미석은 넓적하고 평평한 돌을 사용하여 두께는 10~15cm내외 석재를 사용한다. 미석의 설치여부는 축성자의 의도에 따라 설치 여부가 정해진다. 미석은 성곽 기능에서 여장 시설이 없으면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시설로 여장의 기초석 역할을 하는 기능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축성 당시 축성자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117) 제주산업정보대학 산학협력단, 앞의 책, 2010, 248쪽.

118) 擊臺, 二十七, 垛堞, 四百四(『輿地誌』 城郭條).

아직까지는 제주읍성의 여장시설이 남아있거나 복원하여 제대로 갖추어진 곳이 없기 때문에 연구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제주읍성의 여장 시설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사진들을 참고하여 살펴볼 수 있다.

<사진 8> 제주읍성의 옛모습[119]

<사진 8>은 제주읍성의 옛모습을 촬영한 사진으로 뒤쪽으로 제주읍성이 보이는데 사진에서 체성 위에 여장 형태의 시설을 확인할 수 있다. 좌측 상단에 동치성이 보이고 있으나 남수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촬영시점은 1927년 이후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120]. 사진에서 보이는 여장 높이에 대해서는 성벽의 위치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체성 위에는 여장시설과 미석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동치성에는 미석과 여장 시설이 보이지 않아 이미 훼손이 된 것인지 아니면 여장 시설이 설치가 안되었는지 사진상으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다만, 최근 동치성에 대한 발굴조사결과 여장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겠다.

119) 『제주100년』, 제주특별자치도, 1996.

120) <사진 8>의 원본은 동치성이 우측에 위치해 있어 좌우가 변경되었는데 이는 사진 출력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위 사진을 산지천 상부의 남수구 인근으로 볼 때 동치성의 위치는 좌측 상단에 위치해 있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진을 변경하여 제시하였다.

<사진 8>보다 앞선 시점에서 촬영된 동문 인근의 사진에서는 여장 시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사진이 참고된다.

<사진 9> 제주읍성 성문어귀[121]

<사진 9>는 돌하르방이 서 있는 것으로 보아 제주읍성의 성문주변을 촬영한 사진으로 보이며 <사진 5>의 모습과 유사한 것으로 볼 때 동문 주변으로 보인다. 촬영 시기는 1910년 무렵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진에서는 체성 위에 미석이 설치되어 있고 그 위로 여장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보인다. 여장 높이와 간격에 대해 『정의현성성곽 여장복원 연구』에서 사진 9를 분석하였는데 여장 간격 즉 1타의 길이는 6.2m로 일정하게 시설되었고 높이는 0.99m로 시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 하였다.[122]

제주읍성 여장 시설에 대해서는 앞서 보았지만 구체적인 구조 및 규모 등에 대해서 특별한 기록이 없어 사진 및 사료 기록에 의존한 연구를 하다가 최근 동치성 상부에 대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여장 시설에 대한 규모와 구조 등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발굴된 여장 시설 모습은 다음 사진이 참고가 된다.

121) 제주대학교박물관, 『濟州市의 옛터』, 제주시, 1996.
122) 제주산업정보대학 산학협력단, 앞의 책, 2010, 269쪽.

<사진 10> 발굴된 동치성 동측 여장

<사진 11> 발굴된 동치성 서측 여장[123]

발굴된 동치성 여장시설은 발굴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성벽 위 바깥쪽 가장자리를 따라 장방형으로 축조되었고, 체성과 같은 석재와 축조방식으로 만들어졌다.

123) <사진 10>과 <사진 11>의 자료 출처는 2013년 동치성 해체 복원 공사 시 제주고고학연구소에서 동치성 상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당시 제주고고학연구소에서 촬영한 사진을 본고에 제시하였음을 밝힌다.

여장의 규모는 잔존상태로 볼 때 전면의 폭은 약 200~210㎝이며 높이는 64㎝ 정도이고, 좌·우 여장의 폭은 115~120㎝로 높이는 50~60㎝로 조사되었다. 또한 성벽 여장의 틈새에 다양한 크기 자갈돌이 다량으로 끼여 있어 당시 사용되었던 矢石으로 추정된다고 나와 있다.[124]

이 발굴 보고서의 조사결과와 사진으로 분석한 여장 시설의 규모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여장의 높이와 간격은 지형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동치성 상부에서 발굴된 여장의 평균 높이는 55~65㎝ 범위에서 축조되었으나 사진 7을 분석한 연구에서의 여장의 평균 높이는 99cm로 높이가 30cm 이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석 설치여부에 따른 편차와 동치성 상부에 포루 및 누각 등이 설치되어 일반적으로 성벽에 설치하는 여장의 높이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5) 垓字

해자는 성곽 주변에 인공적으로 땅을 파서 고랑을 내거나 자연 하천 등의 장애물을 이용하여 성의 방어력을 증진시키는 성곽시설의 하나이다.[125] 이는 방어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성 바깥을 따라 둘레에 구덩이를 파거나 성곽 주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河川 등을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물이 있거나 흐르는 경우를 垓字라 하고 물이 없는 경우 隍이라고 구분하기도 한다.[126]

우리나라에서 해자와 같은 방어시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청동기시대 송국리 유적의 環濠集落으로서, 이 유적의 밀집된 주거지 외곽으로 溝의 너비가 2.5m~3m, 깊이가 1.2m인 U자상의 단면에, 1.8m 간격의 방형 내지 원형의 기둥구멍들로 이루어진 목책을 함께 구비하고 있는 것에서 해자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127]

제주도의 읍성 중 垓字의 설치 여부에 대하여 제주읍성 해자에 대한 기록은 다음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공이 命을 듣고 慷慨하여 길게 휘파람을 불고는 바다를 건너 부임하였다. (부임해서는) 진의 군영을 순시하고, 州城을 빙 둘러 긴 참호를 아주 깊게 파서 성문보다

124) 제주고고학연구소, 앞의 책, 2013, 18쪽.
125) 심정보, 앞의 책, 381쪽.
126) 손영식, 앞의 책, 2011, 715쪽.
127)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앞의 책, 2013, 197쪽.

낮게 하였다. (성문에는) 모두 널판으로 다리를 만들어 밤에는 들어 올리고 낮에는 늘어놓아 뜻밖의 환난을 방지하였다.[128]

위 기록은 경오년(1510년)에 제주목사로 부임한 김석철이 제주목사에 부임하자마자 군영을 순시하고 전체 성벽을 두르면서 참호를 깊게 파고 낮에는 통행을 위하여 널판으로 다리를 만들고 밤에는 다리를 들어 올려 적의 침입을 막았다는 『耽羅志』의 기록으로 읍성을 방어하기 위하여 해자를 설치하여 방어를 하였고 성문에 널판지를 이용하여 다리를 만들어 통행에 용이하게 하였다는 내용을 볼 때 제주읍성에 해자가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인식의 탐라지 다음 기록에서도 제주읍성 해자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경록 제주목사는 임진(선조 25년, 1592) 9월에 도임하였다. 그 해 겨울에 바깥 해자를 파고 성위에는 흙집과 판자집을 지었으며 연변의 적선이 정박할 수 있는 곳에는 대부분 방죽을 쌓았다. 동성 위에는 제승정을 지었다.[129]

이 외에도 김상헌의 『南槎錄』에 「擊臺砲樓壕子弔橋諸具」라는 기록과 제주읍성 군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濟州兵制烽臺摠錄』에 "거교군 37명이 있었다"[130]는 기록에서도 제주읍성에 해자 시설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거교군'의 역할은 성문을 나와 해자를 건너는데 필요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져 『耽羅志』의 기록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해자의 기본적인 축조 형태는 해미읍성의 경우를 보면 기본적으로 성벽 외부에 'U'자형으로 구를 파고 구 양 측면에 석축으로 축조하였다.[131] 해미읍성은 해자와 성벽사이에 탱자나무가 심어져 있어 탱자성이라 불리기도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해자에는 물을 채워 방어에 용이하게 하였으나 해미읍성의 해자는 지형적 특성상 물이 고여 있을 수 없는 지형이라 마른 해자의 형태를 갖고 있다.

제주읍성의 해자도 지형적 여건 상 읍성 주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河川이 위

128) 公聞命 慷慨長嘯 渡海旣上 巡視鎭戍 環州城鑿長塹極深 以底於城門 皆橋之以板 宵擧晝鋪 以防不虞(李元鎭,『耽羅志』 樓亭條).
129) 李慶祿 壬辰九月到 其冬鑿外垓子 城上作土家及板屋 沿邊賊船可泊處多防築 東城上作制勝亭 (張寅植, 1848.3~1850.6,『耽羅誌』,「東京大 所藏本」,「濟州牧-先生錄」).
130) 城門擧橋軍三十七名(『濟州兵制烽臺摠錄』, 濟州牧條, 규장각도서).
131) 심정애,「조선시대 읍성의 해자에 관한 연구-해미읍성을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치하고 있어 인공적으로 물을 채워 놓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전체 성벽을 두르며 긴 참호를 팠다는 기록은 있으나 서문의 경우 병문천과 인접하고 있어 해자를 설치하였다면 물을 채워 놓았다기 보다는 마른 구덩이를 지칭하는 隍이 설치되었거나 탱자나무 등을 이용하여 적의 침입에 방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6) 間城

성안에 우물이 없어 식수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명종 20년(1565) 곽흘 목사가 성을 退逐하여 성 안으로 가락천을 끌어들여 식수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 있다.

그런데 성을 退逐시켜 하천을 성 안에 끌어들이는 것은 식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는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나, 강수량이 많은 제주의 기후 특성 상 잦은 큰 비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여 성 안 사람들이 비 피해를 입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조 4년(1780)에 당시 김영수 제주목사가 간성을 쌓아 물의 범람으로 인한 폐단을 막았는데 이 때 축성된 간성의 규모는 길이 551보, 높이는 9척이다.[132] 이를 포백척으로 환산하면 길이는 약 1.3㎞가 되고 높이는 약 4m가 된다.

간성에는 2개의 門이 축조되었다. 제주목사 김영수가 남쪽과 북쪽에 2문을 축조하여 남문을 蘇民門, 북문을 受福門이라 하였는데 헌종 13년(1847) 제주목사 이의식이 북수구성을 퇴축하여 天一亭을 성 위에 세웠고 간성을 加築하여 受福門을 重仁門으로 개편하였다. 이후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중인문이 먼저 헐리게 되었고, 1915년에는 소민문이 훼철되면서 간성의 2문은 사라졌다.

간성은 타 지역의 성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하게 제주읍성에만 축성되었던 성곽이다. 간성의 초축 시기에 대해서는 곽흘 목사에 의해 동성 退逐 이전 산지천과 병문천 사이에 축성 된 성곽을 김영수 목사가 수축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는 淡水契의 『增補耽羅誌』에 “1780년 정조(4)에 목사 김영수가 옛 성터에다 간성을 쌓아서 그 폐단을 없애니....”라 기록되어 있는데 옛 성터라 하면 곽흘 목사에 의해 확장되기 이전 東城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32) 『耽羅誌草本』 城池條

따라서 곽흘 목사에 의한 성곽 확장 이전의 東城 위에 물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성을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133]

간성의 모습은 일제강점기 초기부터 제주 성 안에 살았던 일본인 '다케노 세이기치'가 1909년 노년의 기억에 의존해 그린 다음의 제주 성 동성의 성내 전경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다케노 세이기치가 그린 제주읍 산지천 일대 풍경(38×55㎝)[134]

<그림 2>에 보면 동문을 비롯하여 간성, 중인문, 북수구인 홍문 등 東城 안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동문을 기점으로 東城을 이루고 있는 북서쪽 성벽과 雉城들을 볼 수 있고, 초가집으로 지은 민가의 모습과 그 사이로 난 좁은 길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길은 산지천으로 내려와 광제교로 연결되어 당시에 성 안 사람들의 이동 동선을 알 수 있으며 산지천의 모습과 삼천서당, 공신정 그리고 널다리인 광제교의 모습까지 잘 나타나 있다.

위 그림은 개인이 자신이 살았던 장소를 기억에 의존하여 그린 그림으로 당시 제주 東城 주변의 모습을 비교적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시설물들의 배치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그림으로 제주읍성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제주읍성의 간성을 보여주는 다음의 사진은 제주도 문화재위원을 역임했던 건

133) 間城, 正廟庚子牧使金永綏, 始築之設二門, 而題其東南門曰蘇民門, 東北門曰受福門, 憲廟丁未牧使李宜植, 加築之加受福門曰重仁門(張寅植, 1848.3~1850.6, 『耽羅誌』, 「東京大 所藏本」, 「濟州牧-城郭」).

134)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앞의 책, 2013, 122쪽.

축가 김석윤씨가 소장했던 사진으로 알려지며 『정의현성성곽 여장복원연구보고서』에 최초로 게재되었다.[135]

<사진 12> 제주읍성 간성 및 중인문 사진[136]

<사진 12>의 촬영된 시기는 1900년대 무렵으로 확인된다. 간성에 여장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성벽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1914년 일제에 의해 작성된 지적원도에 해당 성벽과 중인문이 표기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1914년 이전에 촬영된 시기로 추정된다.

그러나 사진이 처음 실린 위 보고서에는 사진의 城門을 제주읍성 남문으로 표기하였는데 남문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 이유로 우선 사진 좌측에 향교전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향교전의 위치에 대해 『增補耽羅誌』에는 "태조 1년(1392) 제주향교를 제주읍 일도리 舊校洞에 지었다가 선조 15년(1582)에 가락천 동쪽 古齡田에 옮겨 세웠으며 현종 9년(1668)에 가락천 서쪽 옛터로 옮겨 세웠다가 경종 4년(1724)에 화재로 인하여 다시 가락천 동쪽 옛터로 옮겨 세웠다"고 나와 있다.[137]

135) 제주역사문화진흥원, 『濟州城』, 제주시, 2015, 83쪽.
136) 제주산업정보대학 산학협력단, 앞의 책, 2010.
137) 향교의 위치에 대해 『耽羅誌草本』의 기록에도 『增補耽羅誌』의 기록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순조 27년(1827) 목사 심영석이 제주향교의 터가 불길하다고 하여 다시 제주성 서문 밖

따라서 향교전 위치가 가락천 동·서에 위치해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위 사진에 나오는 성문은 남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다음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제주읍성 등고선도를 참고해보면 남문이 위치한 곳은 경사가 있어 남문 주변 민가의 배치는 경사지를 따라 배치되어 높이의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사진에 보이는 민가의 배치는 경사가 없이 거의 평탄한 곳에 배치가 되어 있어 결론적으로 남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위 사진의 성곽과 성문을 간성과 중인문으로 보면 중인문 앞을 지나는 하천은 산지천으로 판단되고 '다케노 세이기치'의 그림에 나오듯이 돌다리는 현재의 광제교 자리로 추정된다. 그리고 중인문 위치는 현재 산지천에서 칠성로로 진입하는 진입부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진에서 중인문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정면 3칸, 측면 한 칸의 팔작지붕 구조인 단층문루로 축조된 것으로 보이며 성문의 형식은 통로 상부가 트인 개거식 문루로 확인된다.

사진 속 간성은 하천을 따라 일정한 높이로 축성되었는데 중인문 주변에 여장 시설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간성의 축조는 단순히 하천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서만 새로이 조성된 것이 아니라 방어시설의 용도로도 쓰였음을 알려 준다.

여장 시설 간격은 앞서 살펴본 사진 8의 간격과 마찬가지로 6.2m로 일정하게 시설되었으며 높이 역시 0.9m로 시설되었다.[138] 특히 사진에서 사혈 즉 총안을 확인할 수 있어 간성이 방어시설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간성은 김영수 목사가 새로이 축조하였다기 보다는 원래 제주읍성 東城이었던 성벽을 수축하고 남북으로 문을 만들어 소민문과 수복문으로 편액 하여 물이 넘치는 것을 방지하면서 방어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간성을 축성하여 사용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리로 옮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지금의 위치로 제주향교를 이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138) 제주산업정보대학 산학협력단, 앞의 책, 2010, 269쪽.

Ⅳ. 결론

제주시 중심지역에 축성된 제주읍성은 태종 8년(1408) 이전에 축성된 제주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유산으로 탐라시대 이래 정치, 행정, 군사적인 기능을 겸하면서 제주를 지켜온 耽羅國 首府의 城이다.

읍성이라 불리워지기 시작한 초기 제주읍성은 산지천과 병문천 사이에 축성하였으나 성 안에 물이 없어 식수를 구하기가 어려워 물을 구하기 위하여 증축하였으며 또한 강수량이 많은 제주의 기후특성에 의해 하천의 잦은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증개축을 하였음은 그동안의 연구에 의해 알 수 있다. 다만 성곽의 중요한 기능인 군사적 목적에 의한 증개축에 대한 언급이 기존의 연구에서는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료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 일부나마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주읍성이 일제에 의해 훼철되어 성곽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사료의 기록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제주읍성의 규모 및 축성방법, 재료, 그리고 부대시설에 대한 정확한 연구는 매우 어려운 조건이었다.

필자는 이런 조건에서도 실측 및 발굴조사 등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기록과 비교한 연구를 시도하여 제주읍성 성곽 규모를 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垓字와 城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찾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Ⅱ장의 제주읍성의 입지조건 및 초축 시기, 증개축 시기에서는 조선시대 읍성이 본격적으로 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대한 검토와 축성 배경 및 입지조건 등을 기록 위주로 검토하여 제시하였고, Ⅲ장의 제주읍성 구조에서는 성곽 규모와 築城方法, 성곽 재료 등을 검토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주읍성 둘레 길이에 사용된 用尺은 布帛尺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축성형태는 협축성 형태인 허튼층쌓기로 축성되었다. 또한 제작기법으로는 하단부에 큰 大石을 놓고 상부로 갈수록 크기가 작은 성 돌을 놓아 안전감을 주는 방식으로 축성이 이루어져 있음을 동 치성 해체 사례를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축성재료인 성 돌에 대한 암질 분석을 통하여 도내 곳곳에 분포하고 있는 현무암이 대다수 사용되었음을 재차 확인하였고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

현무암 성분을 활용하여 채석장 위치를 유추하려는 시도를 해봤다. 다만 지질학적인 연구가 미흡하여 확인할 수 없었음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제주읍성의 부대시설에서는 城門, 女墻, 雉城, 甕城, 垓字, 間城 등의 성곽 부대시설에 대한 옛 사진 및 그림, 그리고 최근까지 이루어진 발굴조사 및 정비계획 등을 참고하고 현장 실측을 병행하여 연구한 결과를 작성하였다.

우선 성문의 문루에 대한 기록검토와 옛 사진 및 그림을 통하여 성문의 규모 및 형식을 검토하였고 문루의 규모 및 유래에 대한 사료의 기록을 재차 검토하였다. 그 결과 문루의 창건에서부터 훼철되기까지의 기록을 찾아내어 제주읍성의 성문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였고 남·북수구와 돌하르방에 대해서도 개괄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雉와 女墻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루어진 발굴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雉城 규모와 상부의 건물지에 대해 검토하였고 여장의 규모를 제시하였다. 특히 기존에 알려진 여장 시설의 규모와 발굴조사 결과 측정된 여장 시설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제주읍성의 여장 시설은 일정하게 설치되었다기 보다는 지형과 위치에 따라 조금씩 규모의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垓字 및 甕城, 間城에 대해서는 사료의 기록과 옛사진 및 그림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는데 垓字시설에 대한 沿革과 규모 등을 조금이나마 새롭게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대한 의미를 둘 수 있다.

다만 제주읍성이 훼철되어 전체적인 성곽을 검토하지 못하고 동치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부대시설 중 운주당, 공신정, 결승정 등 제주읍성과 관련된 많은 부대시설들이 있으나 검토가 부족하였다. 이러한 미진한 부분은 추후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1. 史料

『高麗史』「地理志」
『南槎錄』
『南宦博物』
『東國輿地志』
『磻溪隧錄』
『宣祖實錄』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與猶堂集』
『濟州大靜旌義邑誌』
『濟州兵制烽臺摠錄』
『濟州巡撫御使書啓』
『濟州邑誌』
『增補文獻備考』
『增補耽羅志』
『耽羅紀年』
『耽羅昉營總覽』
『耽羅志』
『耽羅志草本』
『太宗實錄』
『華城城役儀軌』

2. 자료집 및 단행본

고영자 편역,『서양인들이 남긴 제주견문록(1845~1926)』, 제주시 우당도서관, 2013

고영자 편역,『서양인들이 남긴 제주도 항해·탐사기(1787~1936)』, 제주시 우당도서관, 2014

고창석,『耽羅國史料集』, 1995

김봉옥,『증보 제주통사』, 세림, 2000

당진군·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면천읍성 연구』, 면천읍성복원추진위원회, 2011

문화재관리국,『전국 읍성 조사』, 1985

박흥수,『한국사 10, 조선-양반관료국가의 사회구조』, 탐구당, 1984

반영환,『한국의 성곽』, 대원사, 2011

서귀포시,『대정성 종합정비계획』, 2012

손영식,『한국의 성곽』, 주류성, 2011

심정보,『한국 읍성의 연구-충남 지방을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1995

제주고고학연구소,『제주성지 누각 복원 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2014

제주고고학연구소,『제주성지 정비 공사 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2013

제주고고학연구소,『제주시 삼도2동 853번지외 3필지 문화재 보존조치(입회조사) 결과보고서』, 2013

제주대학교박물관,『기록, 만농이 바라본 섬 제주』, 제주대학교, 2014

제주도,『제주의 방어유적』, 1996

제주도・탐라순력도연구회,『탐라순력도 연구논총』, 2000

제주문화원,『南槎錄 譯註(上,下)』, 2009

제주문화유산연구원,『제주시(동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설계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010

제주문화유산연구원,『제주지방기상청 청사 신축 부지 내 매장문화재 표본조사(부분완료) 보고서』, 2013

제주산업정보대학 산학협력단,『정의현성성곽 여장복원연구』, 제주특별자치도, 2010

제주시,『文化遺蹟分布地圖-增補 濟州市-』, 2011
제주시,『제주읍성 남문 복원 조성계획』, 1999
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3호 제주성지 정비공사 수리보고서』, 2014
제주시,『濟州城址 및 五賢壇 整備計劃(案)』, 1990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濟州牧官衙址復元計劃』, 1998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濟州牧官衙址』, 1993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濟州市의 옛터』, 1996
제주시・한라일보,『잊혀져 가는 문화유적-제주시편』, 2002
제주역사문화진흥원,『제주성지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제주시, 2013
제주역사문화진흥원,『제주성』, 제주시, 2015
제주특별자치도,『제주100년』, 1996
진영일,『고대 중세 제주역사 탐색』, 보고사, 2008
차용걸・최진연,『한국의 성곽』, 눈빛, 2002
최종석,『한국 중세의 읍치와 성』, 신구문화사, 2014
탐라매장문화재연구원,『제주시 삼도2동 176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내 문화재 시굴조사 간략보고서』, 2008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사),『성곽 조사방법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3
韓國城郭學會,『韓國城郭硏究의 新傾向』, 세종문화사, 2014

3. 논 문

강두용,「朝鮮時代 島嶼地域 邑城에 대한 硏究」,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강창화,「제주읍성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제5차 한국지역학포럼,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4
김명철,「조선시대 제주도 관방시설의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김상옥,「조선후기 제주지방의 군사제도」,『19세기 제주사회연구』, 일지사, 1997
金善範·韓三建,「朝鮮시대 邑城圍郭의 用尺에 관한 硏究」,『國土計劃』, 第33

卷 第2號, 1998
김일우,「조선시대 이전 耽羅國 중심 마을의 형성과 변천 : 濟州牧官衙址 일대를 중심으로」,『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21권제3호, 한국사진지리학회, 2011
金泰中,「慶州邑城」,『慶州史學』 제11집, 경주사학회, 1992
박찬용,「한국읍성의 공간성과 경관성」,『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23권제1호, 한국전통조경학회, 2005
서왕우,한삼건,「읍성의 복원과 보존정비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대한건축학회, 2004
심정애,「조선시대 읍성의 해자에 관한 연구-해미읍성을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양상호,「舊韓末 濟州邑城의 道路體系에 관한 硏究」,『건축역사연구』 제20권제6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11
오수정,「19세기의 제주읍성」,『19세기 제주사회연구』, 일지사, 1997
윤용출,「조선후기 동래부 읍성의 축성역」,『지역과 역사』 제21호, 부경역사연구소, 2011
윤일이,「『탐라순력도』를 통해 본 제주 3성의 건축특성」,『대한건축학회지』 제24권제12호, 대한건축학회, 2008
최기엽,「朝鮮期 城邑의 立地體系와 場所性」,『應用地理』 제22호,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지리연구소, 2001
최성림,「19세기 중엽에서 20세기 초 궁궐 조영에 사용된 용척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최인선,「寶城邑城에 대한 硏究」,『文化史學』 제24호, 한국문화사학회, 2005
최종석,「조선초기 '邑城' 용어 출현의 배경과 읍성의 유형」,『동방학지』 138권,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7